



음악과 취업, 하모니를 찾아서! 새로운 산학협력 프로그램 제안

팀명: 이담소담 (이화를 담아 소리를 담아)

목차

I. 서론

1. 탐방 계기와 주제
2. 탐사 기관 선정
3. 일정

II. 본론

1. 개별 인터뷰

- A. 경력개발센터 및 교수진 인터뷰
- B. 학생 인터뷰
- C. 전문가 인터뷰

2. 경력개발 프로그램 제안

- A. 일대일 맞춤 컨설팅 및 자기 홍보 (Self-promotion) 교육
- B. 교내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설
- C. 기업 후원금 조성
- D. 지역 사회와의 연계
- E. 데이터 베이스 구축
- F. 경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1. 탐방 계기와 주제

모두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음악! 음악은 음악가가 없다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음악대학의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온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해온 학생들 중, 졸업 후에도 음악을 계속하는 비율은 28%에 남짓하다.¹ '20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통계연보'의 취업상황에 따르면 전국 183 개 대학교(University)의 2013 년 졸업자 294,952 명 중, 음악대학 졸업생의 건강보험 DB 연계취업률은 총 28.3%이다. 이는 같은 예체능 분야인 디자인(50.5%), 무용·체육(48.3%)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다른 대학들과 음악대학 사이에 이러한 취직률의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자유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서일까?

이화여대 음악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뭉친 팀 '이담소담: 이화를 담아, 소리를 담아(이하 이담소담)'는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낮은 취업률에 주목하였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이상의 학생이 졸업 후에도 음악과 관련된 진로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클래식음악이 아닌 실용음악 및 예술경영에 대한 관심도 또한 34%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설문에 응한 많은 학생들이 실제 음악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과목'의 부재를 가장 큰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설문조사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많은 수의 음대생들이 음대생을 위한 진로상담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호소한 점이다.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무려 84%의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우리는 졸업을 앞둔 시점에 음대생들의 고민의 소리를 담아 문제 해결을 위해 경력개발센터를 향했다. 본교의 경력개발센터는 '찾아가는 CDC'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었으나 취업의 수요 자체가 적은 음대생에 대하여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음대는 전공 특성상 졸업

¹ 2013년「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한국교육개발원, 2013

후 대학원 진학하는 비율이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으며, 취업통계에 해당하지 않는 레스너의 비율도 무척 높다. 전문 연주자의 꿈, 혹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 일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극소수에 달한다는 것은 현재의 음악인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음악과 취업, 하모니를 찾아서! 새로운 산학협력 프로그램 제안》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우리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음악가를 배출하고 더 앞서나간 음악산업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 유수의 음악대학들을 탐방할 계획을 짜기에 이르렀다.

2. 탐방 기관 선정

우리가 선정한 학교들은 미국 동남부 지역의 **피바디 음악대학** Peabody Institute(이하 피바디), **커티스 음악대학** Curtis Institute of Music(이하 커티스), **줄리아드 음악대학** Juilliard School(이하 줄리아드), **매네스 음악대학** Mannes College The New School for Music(이하 매네스), **맨해튼 음악대학** Manhattan School of Music(이하 맨해튼), **뉴욕대학교 음악대학** New York University(이하 뉴욕대) 총 6 개교였다. 이들 각 교는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각 교를 선택한 간략한 이유이다.

피바디는 의대로 유명한 존스홉킨스 대학교 Johns Hopkins University 에 소속된 음악전문기관으로 음대생만을 위한 경력개발센터(Music Entrepreneurship and Career Center, 이하 MECC)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음대만을 위한 경력개발센터에서는 무엇을 목표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학생들을 돕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했다.

커티스는 재학생이 190 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이지만 졸업생의 1/4 이 미국 상위 25 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²하고 있을 정도로 최고 수준의 음악가들을 양성하는 곳이다. 우리는 커티스에서 기악전공자가 오케스트라에 발탁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² Wikipedia, "Curtis Institute of Music", http://en.wikipedia.org/wiki/Curtis_Institute_of_Music, (2014/03/02)

줄리아드는 그 자체로도 명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함께 위치한 링컨센터와의 연계된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기에, 학교와 연주장 혹은 학교와 예술단체와의 성공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과정을 듣고자 하였다.

맨해튼은 피바디 못지 않은 경력개발센터 (Center for Music Entrepreneurship, 이하 CME)를 운영하며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분야의 음악인을 양성하고 있다. 현대 음악인들의 다양한 진로를 미리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 방문을 계획하게 되었다.

매네스 또한 음대 경력개발센터가 운영되고 있었고, 이곳은 파슨스 디자인 스쿨과 함께 뉴스쿨(The New School)소속의 음악대학이기에, 예술분야의 독창성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뉴욕대는 세계의 중심인 뉴욕, 그 중에서도 뉴욕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현대음악, 재즈 그리고 종족음악학 등의 특이한 색깔을 지니고 있다. 한정적이지 않은 다양한 음악을 배우는 것의 장점을 알고자 하였다.

3. 탐방 일정

우리의 탐사기간은 각 음대들의 방학과 신입생 입학시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4 년 2 월 11 일부터 22 일까지** 총 11 일로 결정했다. 피바디가 위치한 볼티모어의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BWI airport)에 착륙하는 것을 시작으로 필라델피아(커티스 위치), 뉴욕(줄리아드, 맨해튼, 매네스, 뉴욕대 위치)을 메가버스로 이동하며 뉴욕에 위치한 뉴왁 공항(Newark airport)에서 귀국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담소담 팀원 모두에게 처음인 미국행! 명망 높은 각 학교의 교수님과 담당자들에게 우리의 포부를 담아 인터뷰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고 이들을 위한 선물을 정성스레 준비하며 일정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준비기간 동안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고, 때로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보가 비단 우리들 만의 일이 아니며 이화여대 음대,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음대생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며 나아갈 앞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감이 더욱 컸기에 기쁜 마음으로 모여 준비할 수 있었다. 무사히 탐방을 마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모든 내용을 짧은 글 솜씨로나마 이 보고서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화여대에, 경력개발센터에, 음악대학에, 그리고 학생들에게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론을 시작하려 한다.

	이동	탐방 활동
2/10 월	인천공항→볼티모어	
2/11 화	볼티모어→ 워싱턴	- 피바디 MECC 담당자 인터뷰 - 학생 설문지 - 피바디 세미나 참석 - 학생 설문 - 피바디 투어
2/12 수	워싱턴	- 국회 의사당 투어 - 피바디 담당자 인터뷰 및 정리, 회의.
2/13 목	워싱턴	<폭설로 인한 일정 취소> - 피바디 학생 설문지 정리 - 홈페이지와 담당자 저서 참고 - 보고서 작성.
2/14 금	워싱턴→ 뉴욕	- 박물관 관람 - 줄리아드 인터뷰 메일
2/15 토	뉴욕	- 인터뷰 질문과 설문지 내용 수정 및 보충.
2/16 일	뉴욕	- 휴식
2/17 월	뉴욕	- 줄리아드 음대 강충모 교수 인터뷰 - 링컨센터 투어 -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전 단원들과의 점심 및 인터뷰
2/18 화	뉴욕	- 줄리아드 음대 투어 - 맨해튼 음대 투어
2/19 수	뉴욕	- 맨해튼 음대 MSM담당자 인터뷰 - 학생 설문지 및 학생 인터뷰 - 맨해튼 커리어 수업 청강 - HMS Director Theresa Kim과의 면담 - 뉴욕대 투어
2/20 목	뉴욕	- 매네스 음대 투어 - 맨해튼 인터뷰, 커리어 수업 들은 것 정리 및 토의
2/21 금	뉴욕	- 매네스 음대 담당자 인터뷰 - 커리어수업 청강 - 학생 인터뷰 - 줄리아드 담당자 인터뷰 메일
2/22 토	뉴욕→인천	

<표 1> 일정표

II. 본론

1. 개별 인터뷰

인터뷰에 앞서 본론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게 될 Entrepreneurship 에 관해 개념 정리를 하고자 한다. 사전적으로는 (1)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기업가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³ 혹은 (2) '새로운 사업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면서 기업을 키우려는 뚜렷한 의지'⁴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오역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 원어 그대로를 사용하여, 다음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Entrepreneur 로 통칭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Music Entrepreneurship 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피바디의 경력개발센터장이자 『Musician's Way』의 작가인 제랄드 클릭스틴 (Gerald Klickstein)은 Music Entrepreneurship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ntrepreneurship 은 독립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만든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기업이라고 다. 이 개념을 형성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혁신, 생산성, 기획력 그리고 독립성이다.

- 혁신 : 연주를 하든, 가르치든, 작곡을 하든가에 상관없이, Entrepreneurial 음악인은 혁신적인 비전을 세우고 독특한 길을 걷는다. 그들은 남들이 놓치는 기회를 인식하여 신선한 시도를 함으로써 수입을 확보한다.
- 생산성 : 불어인 'Entrepreneur'는 '책임을 지는 자'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Entrepreneurial 음악인은 연습, 작곡, 교육, 홍보, 네트워킹을 하고 행동으로 실현시킴으로써 생산적으로 일한다. 그들은 이러한 창작성과 생산성으로 관객의 수요를 확보한다.
- 기획력 : '음악으로 돈을 버는 것'과 '음악으로 예술을 창조하는 것'은 종종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Entrepreneurial 음악인에게서는 창작성과 산업은 밀접하게 관련된

³ "기업가정신",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02543, (2014/03/12)

⁴ 이상수(2006),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1328&cid=3433&categoryId=3433>, (2014/03/12).

개념이다. 그들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상품으로 창작한 다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음악을 판매함으로써,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의 현실과 융합시킨다.

- 독립성 : 독자적으로 연주 활동을 하든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Entrepreneurial 음악인은 독립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그들이 창작한 음악에 대해 완전한 책임감을 가진다. 협력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팀워크도 뛰어나야 하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Entrepreneurial 음악인들의 혁신, 생산성, 기획성 그리고 독립성이 그들의 수입을 벌어다 주고, 자기 스스로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다.⁵

A. 경력개발센터 및 교수진 인터뷰

(1). Peabody Institute



<사진 1> 피바디 음악원⁶

미국을 대표하는 음대 중 하나로, 의대로 유명한 존스홉킨스 대학교 소속이다. 이담소담의 첫 행보이기도 했던 이곳은, 출신 연주자들의 명성을 뒷받침해줄 만큼 커리어센터(MECC: Music Entrepreneurship Career Center) 또한 앞서나가고 있었다. 놀랄만한 규모의 웹사이트와 경력개발

⁵ Gerald Klickstein, "What Makes an Entrepreneurial Musician?", <https://musiciansway.com/blog/2010/11/what-makes-an-entrepreneurial-musician/>, (2013/03/12).

⁶ "Give to Peabody", <http://www.peabody.jhu.edu/giving/oldgivingpage.html>, (2013/03/02).

센터장 제랄드클릭스틴 Gerald Klickstein의 왕성한 저술 및 강연활동, 그리고 정규 수업과정과의 연계까지.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훌륭하여 볼티모어 주와 인근의 워싱턴 D.C. 내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기회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었다. 그와의 만남은 이번 행보 중 가장 기대되는 만남 중 하나가 아닐 수 없었다.

Music Entrepreneurship and Career center(MECC)

경력개발센터장 Gerald Klickstein

★ MECC의 주요 경력개발 프로그램⁷

1. 음악 경력 관련 온라인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2. 개인 진로 상담
3. **음악경영 부전공**을 포함한 교육과정
4. MECC 직원, 피바디 동문, 저명한 인사 초청 강연 및 세미나
5. 교생 실습 및 인턴십 추천
6. **지역 사회**활동
7. 경력 개발 **장학금**

Q) 귀교의 경력개발센터가 생겨난 배경과 하는 일은?

A) 피바디의 경력개발센터 MECC는 2012년에 시작되었다. 우리는 Music Entrepreneurship을 중심으로 2년 안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 MECC가 제공하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째, 교육 과정의 일부로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경영학과와 연계를 맺어 음악 경영을 들을 수 있게 한다. 둘 째, 교육 과정에 관련된 부수적인 외부 활동으로 수업과 관련되어 음악적 경영을 쌓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교육 과정에 관련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음악적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외부 활동을 지원해 준다.

Q) 귀교의 경력개발센터가 생각하는 'Entrepreneurship'이란?

A) Entrepreneurship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음악적 정체성과 관련해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개인의 음악적 정체성은 자신이 예술인으로서 관심을 가지는 것들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음악인으로서 창조하고자 하는 가치는 다른 사람이 원할 만큼

⁷ "Music Entrepreneurship and Career Center", <http://www.peabody.jhu.edu/conservatory/mecc/>, (2014/03/03).

매력 있는 예술을 말한다. Entrepreneurship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유는 음악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수요에 비해 비슷한 음악을 하는 공급원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MECC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 차별적인 음악적 시도를 하도록 권장한다.

Q) 귀교의 경력개발센터를 보면 음대출신의 직원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왜 음대출신을 고용하게 되었는가? 개인적으로 음대 경력개발센터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피바디 음악원은 독립적인 음대이기에 개별적으로 음대 재학생을 위한 경력개발센터가 존재하고 음대 출신 직원들을 선호한다.

#About Gerald Klickstein

30년경의 연주 경력이 있으며 피바디 음대를 포함한 여러 음대에서 경력개발센터장, 컨설턴트 등으로 일했다. 저서 『Musician's Way』와 개인으로 운영하는 "MusicianWay.com" 블로그는 오늘날의 음악인이 직면하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자료로 칭송을 받고 있다.⁸



<사진 2> MECC 경력개발센터장 인터뷰

“음악인들은 독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개개인의 욕구는 수업에서 다 채워질 수 없다고 생각하여 경력개발센터에서의 실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는 졸업생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리더의 역할을 하고, 정부 또한 각 학교 졸업생들의 성취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에 경력개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직면하게 될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는가?

A) 경력개발의 필요성은 돈을 벌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시작된다. 돈을 벌기 까지,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안정적인 “25년 평생 직장”이 있기 까지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음악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음악적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

⁸ "Contact", <http://www.peabody.jhu.edu/conservatory/mecc/contact.html>, (2014/03/03).

많이 자신의 음악을 베풀고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요즘은 기획사가 따로 없이도 소셜 네트워크 등 기술로 음악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시대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알맞은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러한 현대적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음악 산업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음악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학교 내의 변화는 학교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음대 학장이나 총장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이 논의하기를 권장한다.

Q. MECC는 학생들이 Entrepreneurship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A. MECC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학생들을 지원한다. 첫 째는 금전적인 필요성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경력 개발 장학금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무제한적인 자료와 인력에 대한 접근이 쉽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관련 정보는 기밀하게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신뢰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경력개발센터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학생들이 Entrepreneur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2). The Juilliard School



<사진 3> 줄리아드 음대

세계 최고의 음악대학 줄리아드는 높은 명성에 걸맞게 우수한 연주자 및 예술가들을 양성해낸다. 이 결과에 큰 기여를 했을 것이라 기대되는 경력개발센터 Career Services를 방문하고자 하였다. 또한, 함께 위치한 링컨센터와의 연계된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기에,

학교와 연주장 혹은 학교와 예술단체와의 성공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과정을 듣고자 하였다. 하지만 담당자의 불가피한 스케줄 조정으로, 귀국 후 전화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Juilliard Career Services

경력개발센터장 Courtney Blackwell

★ 줄리아드의 주요 경력개발 프로그램⁹

1. 재학생 및 동문 인력풀 시스템
2. 개인 레스너 인력풀 시스템 및 레슨 프로그램
3. 기술, 경영, 연주, 지역사회에 관련된 다양한 교과과정
4. 음악 전문가와의 프로젝트형 멘토링
5. 콘서트 단체 및 기관 연계
6. 기업, 학교 등에 재학생 파일을 대신 송부해주는 서비스
7. Entrepreneurship 프로젝트를 위한 장학금 제공

Q) 귀교의 경력개발센터가 생겨난 배경은?

A) 줄리아드 경력개발센터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으나, 처음은 줄리아드 학생들을 연주자들로 고용하도록 외부 단체들에 연결해주는 Hire Juilliard Performer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지금은 개인상담, 이력서 교정과 같은 경력개발센터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대상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Entrepreneur가 되도록 경력개발센터가 필요한 정보 및 인력을 통해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Q) 귀교의 경력개발센터가 생각하는 Entrepreneurship은?

A) 요즘의 음악적 시대상을 보면 재능만으로는 커리어를 확립시키기가 힘들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Entrepreneurship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자신의 열정을 직업으로 탄생시키기 위해 주어진 정보와 인력을 알맞게 활용하고 창의적이고 경영적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주도적인 자세이다.

Q) 귀교의 커리어센터를 보면 종합 경력개발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음대출신의 직원이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왜 음대출신을 고용하게 되었는가?

⁹ "Juilliard Career Services", <http://www.juilliard.edu/student-life/career-services>, (2014/03/03).

A) 먼저 줄리아드 커리어센터에는 세 명의 정규직의 직원이 있는데, 모두 예술 관련 전공을 졸업하였다. 학생 조교 및 인턴들을 고용할 때에도 예술 분야 관련 출신을 선호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음악으로 경력을 쌓는다는 것은 보통의 경력들과 다르고 그만큼 독특한 이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음대 학생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음대 출신의 경력개발 직원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Q) 줄리아드는 여러 단체들과 파트너십이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링컨센터와는 파트너십이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가?

A) 링컨센터는 뉴욕의 12곳의 단체와 공연장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유지해오고 있다. 줄리아드도 그 중에 한 곳인데 이에 학교 및 경력개발센터 모두 참여하고 있다. 학교는 전공 부서 별로 링컨센터 쪽에서 수요가 있으면 연결해주고,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연주 행사별로 수요가 있으면 학생들을 연결해주고 있다. 줄리아드 바로 옆에 공연장 건물이 있어 학생들이 연주자로서 발돋움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Q) 귀교에서는 교수님들 또한 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A) 있다. 줄리아드는 학교 전체적으로 Entrepreneurship의 중요성을 생각한다. 따라서 교수진들에게도 Entrepreneurship관련 수업을 가르치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Entrepreneurship관련 수업은 선택과목으로서 경영적 마인드, 기술 관련 수업부터 연주를 통한 지역 사회 참여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다. 경력개발센터와 교수진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여,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논의한다. 교수님들 또한 연주자이자 Entrepreneur의 경력이 있으시기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Q) 줄리아드 경력개발센터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A) 줄리아드 경력개발센터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요청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존재한다. 먼저, 줄리아드 재학생 및 동문들을 고용하도록 그들의 프로필을 개제한 인력풀이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수요일마다 열리는 런치 세션으로 점심 시간에 워크숍을 열어, 점심을 먹으면서 전문

음악인들과 인맥 형성도 하는 네트워킹 자리이다. 워크샵은 인터뷰 기술, 이력서부터 패널 토론, 라운드 테이블까지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성격을 가진다. 세 번째로는 Entrepreneurship을 시도 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장학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장학 프로그램은 아이디어의 영향력, 혁신성, 자료 활용력의 기준을 토대로 인터뷰 심사를 거쳐 학생들을 선발한다. 마지막으로 는 음악 전문가와의 프로젝트형 멘토링을 실시한다. 학생들이 예술가로서 자신이 세운 목표와 관련되어 구상한 프로젝트에 알맞은 전문 음악인 멘토를 연계해주어 프로젝트의 실현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경력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 줄리아드 경력개발센터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Juilliard 강충모 교수 인터뷰



<사진 4> 강충모 교수님 인터뷰

강충모 교수는 줄리아드 스쿨의 유일한 동양인 교수로, 우리나라에서도 피아니스트 겸 훌륭한 피아노 교수로 많은 후학을 양성해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창시 멤버로, 2011년 줄리아드 스

쿨의 피아노과 교수로 임명되었다. 우리는 강충모 교수와 연락하여 줄리아드 스쿨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줄리아드 내의 매니지먼트와 링컨센터와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줄리아드의 학생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미국의 학교에서는 4년간 가르쳐서 그냥 졸업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 관리를 많이 한다. 만약 연주 때문에 수업에 빠질 경우, 지도교수에게 연락해서 어떤 식으로 빠진 수업을 보충해줄 수 있는지 개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워준다. 또한, 학생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학생이 현재 배우고 있는 교수가 있어도 학생이 원하는 다른 교수와 함께 레슨을 받고 조언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Q) 줄리아드 내에 경력개발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A) 줄리아드 내에 경력개발센터가 있으며 기획사들과 연결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드라마와 연극을 포함한 연주를 하고 싶은 경우, 그 학생과 맞는 기획사와 연결해준다. 또한 클래식 연주자가 되기 위해 조언을 구할 경우 세세하게 조언을 해준다. 예를 들어 학생의 프로필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인맥 관리(예시: 학생이 아는 연주자들에게 크리스마스마다 카드를 보내라고 조언, 또는 연주 후 리셉션에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조언, 뉴욕 시장에 대해서, 문화,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스폰서와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등 세세한 것까지 도움을 준다.

Q) 장학금을 주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

A) 줄리아드 스쿨에서는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성적이 B+이상일 것 외에도 외부 장학금을 주는 곳에서 연주를 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00뮤지엄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장학금을 받고, 뮤지엄에서 연주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에게 자신의 홍보가 됨.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자원 봉사 연주는 나중에 외부 후원을 요청할 때, 많은 연주 봉사 경력이 후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Q) 링컨센터와의 연계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나?

A) 링컨센터에서는 줄리아드 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는 날을 정기적으로 잡아 놓았으며, 링컨센터의 연주회는 물론, 박물관 티켓 등을 할인해준다. 또한, 링컨센터 내의 리허설을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전체 학생들에게 메일로 알려준다.

(3). Manhattan School of Music



<사진 5> 맨해튼 음대¹⁰

뉴욕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맨해튼 음대에도 음대 재학생만을 위한 경력개발센터 (CME: Center for Music Entrepreneurship)이 2년 전에 설립되어 있었다. 이곳의 경력개발센터장 안젤라 비칭 Angela Beeching 은 본교 경력개발센터의 창시자로 시작해 지금은 CME의 왕성한 강의활동 까지 겸하고 있다. 종합대학 소속의 음대가 아닌, 음악만을 가르치는 이 학교에서 커리어센터를 만들게 된 강력한 동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었다. 또한 이담소담의 문의 메일에 굉장한 관심을 표하며 적극적으로 호의를 보여주었기에 긴장 속 따뜻한 만남까지 기대되었다.

¹⁰ Ms. Operageek, <Auditions, Auditions and More Auditions>, <http://msoperageek.wordpress.com/2013/06/20/auditions-auditions-and-more-auditions/>, (2014/03/05)

Center for music entrepreneurship(CME)

경력개발센터장 Angela Myles Beeching & 경력개발센터 부장 Casey Molino Dunn

★CME의 주요 경력개발 프로그램¹¹

1. 취업 관련 상담과 Entrepreneurship 코칭
2. 외부 인사들에게 음대 재학생의 프로필을 제공하는 인력풀 시스템
3.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음악인 데이터베이스
4. Entrepreneurship관련 필수 수업/워크샵 제도
5. 기업, 학교 등에 재학생 파일을 대신 송부해주는 서비스
6. 맨해튼 녹음실에서 제공하는 음반 녹음 서비스

Q) 귀교의 경력개발센터가 생겨난 배경은?

A) 맨해튼 음대의 경력개발센터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으나 Center for entrepreneurship로 바뀐 것은 2010년부터다. 이는 Entrepreneurship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부터이다. 이 개념은 미국에서도 비교적으로 새로운 편이나, 비슷한 정신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고 생각한다.

Q) 학생들에게 Entrepreneurship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일깨우는가?

A) 오리엔테이션에 idea of entrepreneurship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진로탐색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경력개발센터 직원들이 음대 수업에 찾아가 프레젠테이션을 하여 경력개발센터가 매우 열려있는 곳임을 보여주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도모한다 필수인 경력개발센터 수업/워크샵이 있지만 3학년 때부터 듣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Entrepreneurship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은 이룰수록 좋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수업도 찾고 있다. 오케스트라 등의 전통적인 직업이 있지만 스스로 기회를 찾아 만드는 프로젝트 형태의 직업도 많다. 또한 요즘 경제는 자신이 기회를 창조하고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를 생각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과 비즈니스 플랜을 짜는 법도 배운다.

¹¹ "Center for Music Entrepreneurship Services", <http://www.msmnyc.edu/Instruction-Faculty/Center-for-Music-Entrepreneurship/CME-Career-Services>, (2014/03/03).

Q) 귀교의 커리어센터를 보면 음대출신의 직원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왜 음대출신을 고용하게 되었는가? 개인적으로 음대 경력개발센터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미국의 다른 음대 경력개발센터도 음대 전공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에 덧붙여 다양한 경력을 쌓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About Angela Myles Beeching

첼로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음악 경력개발 관련 분야의 선구자로서 미국 음대 경력개발센터들의 네트워크(NMCDO)를 공동 창립하였다. 여러 음대에서 경력개발센터장, 컨설턴트 등으로 일했고 저서로는 『Beyond Talent: Creating a Successful Career in Music』 등이 있다. 여러 주요 기관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고, 개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으로 운영하는 “Monday Bytes” 블로그가 있다.¹²



<사진 6> 맨해튼 경력개발센터장, 부장과의 인터뷰

"첼로 실내악 연주자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정작 첼로 연주자가 되었을 때 별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중 학생들에게 음악 취업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학교에 제안서를 써서 제출하는데 학교는 제 제안을 받아들이고 저를 경력개발센터 조교로 고용해주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제 커리어가 될 줄 몰랐습니다."

Q)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직면하게 될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는가?

A) 학교에 경력개발 프로그램 제안을 하게 될 때 자금, 공간, 시간 등 부수적인 것을 이유로 학교 입장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학생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더 들어줄 것이다. 만약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워크샵/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라는 많은 학생들의 수요를 증명시킨다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학교의 경력개발센터와 비교하여 우리학교도 다른 학교와 걸맞은 교육을 제공받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¹² "Meet the CME Staff", <http://www.msmnyc.edu/Instruction-Faculty/Center-for-Music-Entrepreneurship/Meet-the-CME-Staff>, (2014/03/05).

Q) 워크샵과 수업 등에 교수진들도 조언하고 참여하는지?

A) 수업은 경력개발센터 직원들이 진행하지만 자주 교수님들을 연사로 초대한다. 이분들과 졸업생들을 외부 인사들보다 우선 순위로 초대하는데, 교수님도 평소 레슨이나 수업에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기회라 좋아하신다. 또한 동문-교수-학생들과 무엇이 우수 사례인가에 대해 자주 면담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료로 보관한다.

Q) 당신은 미국 음대 경력개발센터 네트워크의 창시자이다.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가? 매년 열리는 회의에서 공유한 아이디어로 실제 프로그램을 만든 사례가 있었는가?

A) 경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때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어떻게 할지 걸잡을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럴 때 혼자 고민하기만 하면 큰 발전이 없을 꺼라 생각하여, 만들게 되었다. 매년마다 미국 주요 음대의 경력개발센터 직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한다. 그래서 이루어 낸 것이 지금 보는 CME의 많은 프로그램들이다.

Q) CME는 학생들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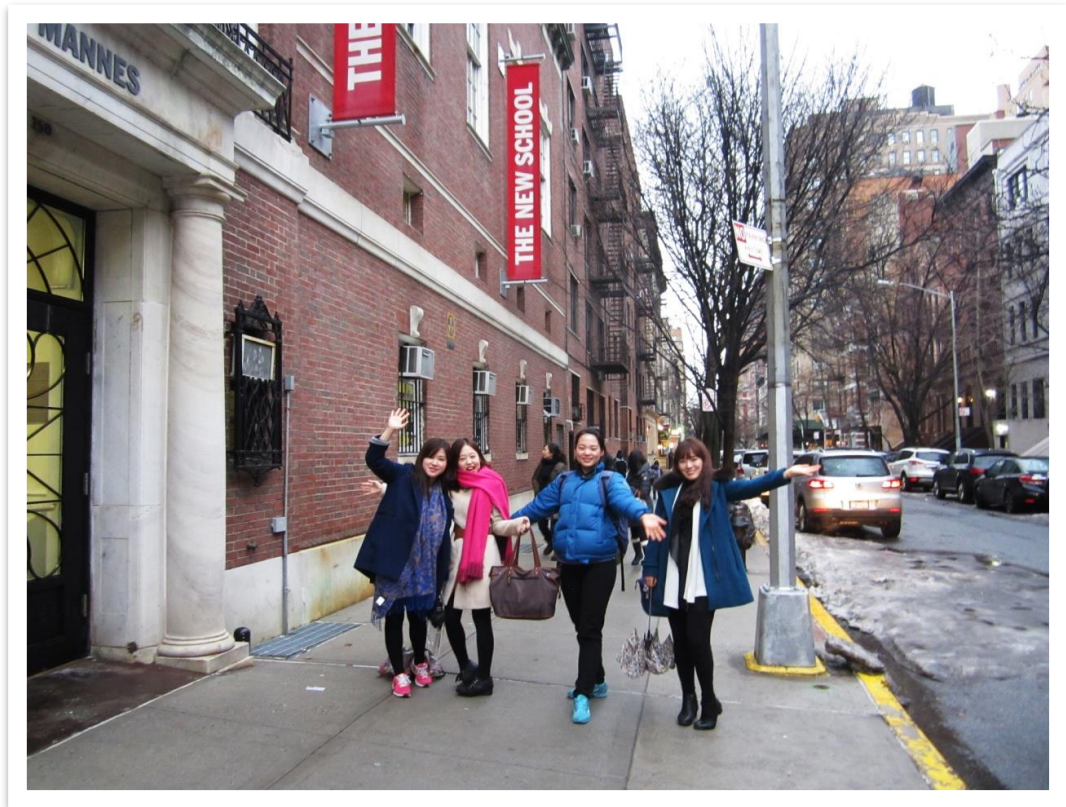
A) 많은 학생들이 다른 진로의 기회를 잘 모르고 대부분 연주자나 선생님이 되는 길만을 생각한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솔로이스트로 성공하는 수는 극히 드물뿐더러 반드시 연주자의 직업이 자신과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CME에서는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또한 연주 외의 경력이라도, 학생이 어떠한 경력을 쌓아왔는가 보고 음악과 관련된 것을 강조하여 더 깊게 탐색하도록 하고 관련된 기회를 일깨워준다. 연주 경력이 많은 학생들에게도 지역 사회 활동이나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등 다양한 것을 시도할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발견하는 학생들도 많다. 예를 들어, 기술과 정보의 시대인 만큼 음악앱을 개발하거나, 음악 관련 온라인 비즈니스나 온라인 교육을 만든 학생도 있다. 즉, 음악인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넓게 생각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이스트가 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학생에게 어떻게 조언하겠는가?

A) 자신의 커리어는 스스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가에 달려있다. 굳이 기획사가

없어도 스스로 작게나마 콘서트를 열어 나의 얼굴과 재능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하나의 연주가 연속의 연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성공한 솔로리스트들의 프로필들을 보고 그들이 성공하게 된 다양한 과정을 참고해보라.

(4). Mannes College the New School for Music



<사진 7> 매네스 음대

1971년 지식인들이 주도하여 만든 뉴스쿨 The New School 소속의 음대. 이 학교에는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파슨스 디자인 스쿨 Parson's Design School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대학 형태이지만, 단대 각각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하나의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특히 예술 분야의 단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에 예술 전공 졸업생들에게 맞는 진로 상담과 취업대비 프로그램들이 이뤄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다른 예술분야끼리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찾아갔다.

The Center for Student Success.

Tanya Kalmanovich 교수님과 경력개발센터 컨설턴트 Ar Adler

★Mannes의 주요 경력개발 프로그램¹³

1. 매주 개인 레슨에서 교수님과의 일대일 멘토링
2. 매네스 컨설팅 직원 및 종합 경력개발센터 직원과의 진로 상담
3. 음악 경영과 Entrepreneurship에 초점을 둔 정규 교과과정
4. 활발히 활동중인 뉴욕 전문 음악인 초청 워크샵, 세미나 및 패널 토론
5. '오디션 기술'부터 '음악인 조직'까지 다양한 주제의 강연
6. 음악 페스티벌, 경연, 인턴십, 직업, 대학원 등 관련 최신 정보 제공

Q) 귀교의 경력개발센터가 생겨난 배경은?

A)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학풍으로 유명한 뉴스쿨 The New School에 소속되어 있는 매네스 음대는 매네스만의 독자적인 경력개발프로그램들로 앞서나가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뉴스쿨 내의 디자인, 건축, 드라마 등의 타 단대들과 통합한 경력개발센터로 나아갈 예정이다. 이로써 매네스 음대는 다양한 학제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타 음대들과 차별화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

Q)귀교의 경력개발센터가 생각하는 Entrepreneurship은?

A) Entrepreneurship은 '돈과 삶의 관계는 무엇일까'라는 기초적인 큰 그림에서 시작한다. 매네스 학부 수업인 The Entrepreneurial Musician에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질문부터 음악으로써 사회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방안까지 공부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매네스는 다른 음대와 차별적으로 다양한 학제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가치 창조를 추구한다. 이는 음악인들은 음악인의 렌즈로만 보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의 네트워크에 노출될수록 다양한 가치가 창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매네스 내에 구축된 네트워크에서 학부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실시한 바가 있다.

Q) 매네스 음대는 최근에 Entrepreneurship관련 수업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본인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가? 이 수업은 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의 일부인가?

¹³ "Mannes Career Development", <https://www.newschool.edu/Mannes/subpage.aspx?id=3040>, (2014/03/06).

A) 최근에 뉴스쿨 총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음악적 Entrepreneurship을 중요성을 인식하여 음악 경영에 관한 수업을 새로이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자 하셨다. 경력개발 관련 일을 하는 아는 분 중에 Entrepreneurship에 관한 학부, 대학원 수업을 내게 제안하였다. 따로 Entrepreneurship에 관련한 공부를 공식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나 또한 25년의 연주 경력이 있는 Entrepreneur로서 연주를 하던 시절에 느꼈던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방안을 유동적이고 전체론적이며 학제간의 관점에서 공유하고자 노력한다. 이 수업은 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의 일부는 아니고, 새로 교과 과정에 포함된 수업이다. 그렇지만 Entrepreneurship 주제를 가지고 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 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가까이 협력하고 자주 회의를 같이 하는 편이다. 또한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도 경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Q) 귀교의 커리어센터를 보면 종합 경력개발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음대출신의 직원이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왜 음대출신을 고용하게 되었는가?

A) 종합 경력개발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음대 재학생들에게 음악적 전문성을 제공하고자 음대출신의 직원이 존재한다. 학생들에게 경력 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단대와의 교류를 통해 시야를 다양하게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음대출신의 직원이 있어 학생들이 진지하게 조언을 따를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About Counselor Ar Adler

음악을 독학으로 배워 보컬, 기타 연주자, 작곡자, 스튜디오 선생님, 공연 코치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이후에 뉴욕대에서 음악 학사 학위를 받아 맨해튼 음대에서 경력개발센터 부소장으로 일하다가 지금의 뉴스쿨 The Center for Student Success 의 음악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사진 8> 매네스 경력개발센터장, 교수님과의 인터뷰

(5). Curtis Institute of Music

Career Development Services	
경력개발센터장 Mary Kinder Loiselle	
★ 주요 경력개발 프로그램¹⁴ 1. 음악 경력 관련 온라인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CURTIS CAREERLINE 2. 다양한 경력개발을 주제로 정보 제공 3. 개인 진로 상담 4. 커리어 개발 수업 5. . 뉴욕 전문 음악인 초청 특강 CAREER FORUM	

줄리아드가 전 세계의 인재가 모이는 곳이라면, 커티스는 전 세계의 영재가 모이는 음악 교육기관이다. 21세 이상은 입학할 수 없는 이곳은 4년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홈페이지 상으로는 커리어센터의 활동을 다 볼 수 없었지만, 학생 정원이 200명도 채 안되고 교수 대비 학생 수가 1:5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수업뿐만 아니라 진로와 같은 중요한 일에도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트레이닝이 있으리라 짐작되었다. 또한 이곳의 졸업생들이 미국 상위 25개 오케스트라 단원의 1/4을 차지한다는 통계에 의거하여 학교와 미국 내 여러 오케스트라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묻고 싶었다.

Q) 귀교의 경력개발센터가 생겨난 배경은?

A) 커티스 음대는 프로그램 형식으로 2007년부터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던 중 우리들의 자료와 서비스를 더 많은 학생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2012년에 사무실을 열었다. 커티스 경력개발 서비스는 음대 출신 전문인 한 명의 직원(경력개발센터장: Mary Kinder Loiselle)으로 운영하며, 1년 4-5명의 학생들이 조교로 고용된다.

#About Mary Kinder Loiselle

학사로는 음악 교육, 석사로는 음악사, 박사로는 음악 이론을 전공하였다. 미국 내 3개의 주요 오케스트라 단을 운영했고 링컨 센터를 포함한 기관에서 홍보 담당으로 일했다. 그 후 이스트만 음대를 포함한 여러 대학의 교수로서 경영, 음악 이론 등의 과목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 그녀는 2007년부터 커티스 음대 경력개발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 트레이닝을 받은 전문인 경력 컨설턴트로서 학생들과 외부 의뢰인에게 상담을 제공하며, 다양한 주제로 초청받아 세미나를 연다.

¹⁴ "Curtis Career Development Services, <http://www.curtis.edu/students/campus-resources/career-development-services/>, (2014/03/20).

Q) 커티스 경력개발 서비스에는 수많은 경력개발 관련 수업이 존재한다. 이 수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커티스 경력개발 서비스는 음악인의 다양한 경력이 성공으로 이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공, 기술, 지역사회, Entrepreneurship 등에 대한 다양한 경력개발 수업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수업은 "The 21st-Century Musician(21세기의 음악인)" "Foundations of Engagement(관계의 기초)" 이다. 또한 전공에 따라 분류하여 필수 수업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음악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The Performer as Teacher(연주자로서의 교사)", 오르간 전공의 학생들에게는 "The Sacred Music Seminar(신성한 음악 세미나)" 수업을 필수로 수강하게 하여 교회 회당에서 연주자로 일하는 법을 배운다. 이 외에도, Entrepreneurial 기술을 터득하도록 음악 기술, 지역 사회 연주 프로젝트 등에 관한 수업을 선택으로 수강할 수 있다.

Q) 커티스 경력개발 서비스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A) 위에 기술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최근에 커티스가 운영하는 모든 경력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프로그램 결과 심사는 커티스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커티스만의 독특한 프로그램 또한 개설할 예정이다.

Q) 커티스 졸업생이 미국 전체를 통틀어 25개의 오케스트라 단원의 17%를 차지한다. 이토록 높은 통계를 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커티스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특히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오케스트라 단원의 연주자들이 커티스에서 가르치고, 오케스트라 감독이 커티스 지휘 전공의 학생에게 멘토가 되어 주기도 한다. 또한 커티스 학생들은 오케스트라에서 솔로리스트 혹은 객원연주자로 연주할 기회도 종종 있다. 이 외에도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솔로리스트들을 초청하여 오케스트라 리딩을 해주거나 혹은 석사 수업을 부탁하기도 한다. 그치만 무엇보다도, 커티스가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연주자들을 학생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들이 상위 오케스트라 단의 오디션에서도 성공적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B. 학생인터뷰

(1). 매네스 음대 Thomas & Angel

학생 인터뷰 – Thomas & Angel



<사진 9> 매네스 학생과의 인터뷰 1

학교에서 얼마나 좋은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담소담은 매네스에서 현재 피아노와 작곡의 석사 과정 중인 토마스와 작곡 전공 엔젤을 만나 졸업 후 진로와 커리어센터의 이용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정했는가?

A) (Thomas, 이하 T) 석사 과정 마친 후에 박사 과정을 밟고, 콩쿨을 계속 나가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비를 벌며 대학 강사 자리를 얻으려고 한다.

A) (Angel, 이하 A) 작곡가 겸 대학 강사가 되려고 한다.

Q)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조언을 잘 해주는가?

A) (A) 그렇다. 토마스와 나는 같은 작곡과 교수님에게 배우고 있는데, 진로에 대한 상담을 잘 해주신다. 또한 다른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거나, 레슨을 받을 경우 두 교수님께 같이 배울 수도 있게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다.

Q) 커리어 센터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가?

A) (T) 한 번 있다. (A) 커리어센터의 존재 여부는 알고 있었지만, 이용해 본 적 없다.

Q) (토마스에게) 커리어 센터를 이용 후 느낀 점은 무엇인가? 또 상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A) (T)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일단 전문가가 내 이력서를 봐준다는 것 자체가 좋았다. 피아노 학교에서 주말에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지원하는 데 낼 이력서였고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상담 과정은 간단했다. 커리어센터에서는 내가 이전에 쓴 이력서를 점검해주고, 내가 더 뛰어나 보일 수 있게 수정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DMA과정을 준비할 때 한 번 더 이용할 계획이다.

Q) (토마스에게)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었는가?

A) (T) 홈페이지는 올해 1월 만들었다(www.thomaseweaver.com). 소속된 기획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나 스스로 홍보하는 것이다. 내가 작곡한 곡 리스트도 올려 놓았고, 직접 연주한 피아노 동영상도 업로드 해 놓았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우리는 매네스에서 이처럼 큰 포부를 가진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홍보에 대한 개념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자신감이 뛰어남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센터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지만, 커리어 센터가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지름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이들의 학교인 매네스를 비롯해 대다수의 미국 음대 경력개발센터의 직원이 음대 출신이고 현재까지 연주 활동과 레슨을 병행하는 일이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선배와도 같은 이들의 살아 있는 조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토마스가 경력개발센터의 도움을 받아 음악인으로써의 직업에 한 걸음 나아갔듯, 엔젤도 학년이 올라가면 경력개발센터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성장하리라 생각한다.

(2). 피바디 음악원 Ari

학생 인터뷰 – Ari Isaac Messenger



<사진 10> 피바디 학생과의 인터뷰

아리는 피바디의 경력개발센터에서 친절히 소개해 준 우리의 투어 도우미였다. 그는 우리에게 학교 구석구석을 소개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처음이자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탐방지인 피바디에 관해 궁금한 것을 이것 저것 물어볼 때마다 친절하게 답해주었다. 그는 특이하게도 피바디가 속해 있는 존스 홉킨스에서 기계 공학을 음대에서의 재즈 바이올린과 함께 복수 전공하고 있었다.

Q) 기계공학과 재즈 바이올린을 복수 전공하는 점이 특이하다. 왜 복수 전공을 하는가?

A) 미국에서는 복수 전공을 하는 것이 많은 학생들에게 당연한 일이다. 음악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나 또한 재즈 바이올린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복수 전공인 기계 공학으로 직장을 얻기 위해 따로 공부한다.

Q) 그렇다면 졸업 후에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인가?

A) 엔지니어다. 주중에는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주말에는 내가 하고 싶은 재즈 바이올린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

Q) 한국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같은 단대 안에서 이루어진다.

A) 가능하다. 대신 두 가지의 전공을 동시에 4년 안에 끝낸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나 개인적으로는) 5년 동안 나누어 다니는 것으로 나뉘었다.

Q) 여하튼 대단하다. 그런데 복수전공을 하면 학비는 두 배를 내는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더군다나 음대 한 곳만 다녀도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다. 나 뿐만 아니라 피바디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학교에는 다양한 장학금이 구비되어 있고, 커리어센터에서 나에게 맞는 장학금 혹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해 주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있다. 나 또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지만, 특별한 일은 아니다.

Q) 그렇다면 우리 같은 유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의 기회가 열려 있는가?

A) 물론이다. 꼭 와서 함께 공부하자.

Q) 음대생으로서 피바디의 커리어 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가?

A) 안타깝게도 피바디는 아니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커리어센터를 이용해 봤다. 나의 이력서 교정을 도와주었으며, 여름 방학에 일할 인턴ships를 찾아주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피바디 경력개발센터는 학생들의 웹사이트/홈페이지 제작에 유용하다고 들은 바 있다.

아리와의 대화에서 경력개발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와의 대화를 통해 미국에서는 음악만으로 생계가 어렵다는 사실을 학교부터 학생까지 똑바로 직면하고, 당연히 그에 대응할 나름의 방법들을 찾은 지 이미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한 가지 전공만 해도 힘겨워할 법도 한 명문대에서 두 가지 전공을 자연스럽게 장학금을 받아가며 공부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후에 줄리아드를 방문했을 때에도 (기악전공이 없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줄리아드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의 일화도 들었으며, 맨해튼에서 만난 한 학생은 피아노전공이지만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했다. 줄리아드의 다른 학생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하면서 동시에 작곡공부를 하고 있기도 했다. 한 가지 전공만 파고 들고, 그에 맞는 직업을 찾지 못해 남들과 똑 같은 공무원 시험이나 입사를 준비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이

에 따라 맨해튼 CME의 안젤라가 “평생 배우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해준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평생 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무한히 노력하고 추구하는 미국의 음대생들이 부럽지 않을 수 없었다.

C. 전문가 인터뷰

(1). 펠릭스 헬(Felix Hell)

사전 인터뷰 - Felix Hell



<사진 11> 펠릭스 헬¹⁵

9세부터 지금까지 700회 이상의 개인 독주회를 본국 독일,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등 44개 국에서 열어온 오르가니스트.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에서 솔리스트로 활약했으며 13세의 나이에 줄리아드에 입학, 2년 후에는 커티스에서 공부를 시작했으며 석사와 박사 과정은 피바디에서 졸업하였다. 현재 각종 오르간 협회 소속 회원이며, TV에도 활발히 출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산에 위치한 고신대에도 방문하여 가르친 이력이 있다.¹⁶

우리가 해외탐방을 위해 피바디 음대에 보낸 인터뷰 요청 메일에 대해 답신이 왔을 때, MECC센터장 제럴드 클릭스틴은 피바디 출신의 오르가니스트가 이화여대에서 곧 연주회를 여니 그와 먼저 만나보라는 제의를 했다. 그의 이름은 펠릭스 헬 Felix Hell이었고, 커티스, 줄리아드, 피바디 등 이담소담이 탐방하고자 하는 유수 대학들의 대부분을 거친 인재였다. 해외 탐방의 첫 발걸음을 본교 음대에서 떼게 된 감사한 기회였다.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음대 516호에 들어섰다.

Q) 아시아와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

A) 처음에 2002년에 서울, 광주에서 콘서트에서 연주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2008년에도 연주를 했었는데, 이번은 독일대사관이 한독 외교수교 130년을 기념으로 공연을 개최하고자 하였고,

¹⁵ "Felix Hell, Concert Organist, Press Photos", <http://www.felixhell.com/#!/press-photos/c9nm>, (2014/03/07).

¹⁶ 강주화, "한독수교 130주년 펠릭스 헬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 <국민일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760560&cp=nv>, (2014/03/08).

내가 이전에 한국에서 연주 경력이 있는 것을 보고 연락을 취해왔다.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의견을 나누다가, '한독 문화교류' 연주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였다.

Q) 한국에서는 생소한 Music Entrepreneurship이라는 말이 미국의 음대에서는 자주 쓰이는 것 같다. 헬은 이 단어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가?

A) Music Entrepreneurship이란, 기획사의 제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항상 자신의 음악에 대해 생각하고, 그 음악이 사회와 세계에도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하여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Q) 한국의 음대 졸업생들은 졸업 후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미국은 어떠한가?

A) 미국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음대생이 받는 훈련 자체가 취업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졸업한 커티스에서는 학생들의 연주활동을 많이 장려해 주는 곳이다.

Q) 어떻게 학생들의 연주활동을 장려해준다는 말인가?

A) 커티스는 굉장히 예외적인 곳이다.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이 1:5 정도나 된다. 만일 한 학생이 연주여행으로 2주간 학교에 결석한다면, 돌아와서는 그만을 위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잡는 데 문제가 없다. 연주자로 발돋움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곳이다.

Q) 당신이 졸업한 학교들에서 음대생들을 위한 일대일 맞춤 면담/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학생 공통적으로 반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프로젝트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상의하고 조언해준다. 학생들이 전공수업만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사진을 넣는 것부터 관계자들에게 연락하는 법까지 세부적이고 다양하게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커리어센터의 담당자들은 자신의 일에 아주 헌신적이다.

Q) 당신은 커티스 외에도 줄리아드, 피바디 등 무려 명문 음대를 세 곳이나 졸업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A) 나는 커티스에 9세의 어린 나이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진학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졸업한 학교들은 저마다 특색이 있어서 각 학교에서 내가 얻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 커티스는 아까 말했듯 나의 연주자로서의 길을 열어 준 정말 특별한 곳이고, 피바디에서는 지금까지도 나를 도와 관리해 주시는 경력개발센터의 선생님이 계시다.

Q) 개인적으로 어떠한 Music Entrepreneur가 되려고 노력하는가? Entrepreneurship기술을 어떻게 키우는지?

A) 자신 스스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나는 에이전트 없이 콘서트 스케줄을 혼자 관리하고 연주 시간 외에는, 지속적으로 커리어에 대해 생각하고 발전시킬 방법을 구상한다. 네트워킹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기획사가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획사도 이미 성장한 음악인들을 찾고, 거기서부터 지원을 해준다. 첫째로 재능이 뛰어나야 하지만 Entrepreneurship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Entrepreneurship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이 언젠가는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경쟁이 치열한 시대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경력에 대해 스스로가 주도적이어야 한다.

Q)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 연주 여행을 다닐 정도로 영재였기 때문에 지금도 연주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같다. 음대를 졸업한 후 직업을 갖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첫째로 연주실력이 좋아야 한다. 뛰어난 연주 실력을 보유하면 제랄드 클릭스톤 분과 같은 경력개발센터 등에서 기꺼이 도와준다. 그는 내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었고, 나의 일을 나보다 더 먼저 움직여서 길을 닦아놓아 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다. 피바디에서 그를 만나면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는 미국의 앞서가는 음대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알게 되었다. 첫째는 학교와 음대생 개인과 경력개발센터의 역할이 철저히 나누어져 있고 이것이 서로 잘 지켜진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전문지식을 가르쳐 주며,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이렇게 음악가로 성장해가는 이들에게 경력개발센터는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제시해 주고, 실제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도와 나침반과 신발과 식량을 쥐어준다. 물론 그 신발은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와 디자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업과 함께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학생을 위해 학교는 수업 등을 보조해 주며 끝까지 돌보아준다. 마지막으로 커리어센터는 이와 같이 학생을 이끌어 줄 뿐 아니라, 음악이라는 전문지식을 가진 학생이 스스로를 독립된 음악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가르쳐 준다. 이와 같은 구조라면 학교에서 단순히 지식을 배운 뒤 스스로 갈 길을 찾다가 시작도 못 해보고 꿈을

접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는 한 개인이 연습만 해서는 연주자로 성장할 수 없고, Music Entrepreneur이라는 음악 경영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스스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이 새롭게 느껴졌다. 이것은 위와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어떤 제도를 당장 미국식 선례대로 바꾸기보다는 학생들의 마음 자세를 이와 같이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알맞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막연한 감도 없지 않았던 머나먼 미국 음대의 탐방을 계획하던 중, 펠릭스와의 만남은 우리의 탐방에 구체적인 갈 길을 제시해 주었다.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를 배출하는 것이 학교에도, 경력개발센터에도 보람일 뿐 아니라 음악사회 전체에도 더욱 역동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이담소담의 행보도 이러한 앞날을 앞당기는 자그마한 움직임이 되기를 바란다.

(2). '꼬마작곡가'의 창시자 존 딕(Jon Deak)

존 딕(Jon Deak)



뉴욕필하모닉의 베이스 연주자 존 딕은 이담소담이 생각하는 모범 Music Entrepreneur이다. 그가 만든 꼬마 작곡가는 뉴욕필하모닉의 스쿨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초등 3~5학년 어린이들의 작곡을 도와준다. 딕이 1995년 개발한 이래 핀란드, 영국, 베네수엘라, 스페인 등 세계 9개 나라에서

20년째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0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뉴욕필하모닉이 워크숍을

열어 시범 운영한 후 2013년 정식으로 시도되었다.¹⁷

<사진 12> 꼬마작곡가의 창시자, 존 딕¹⁸

¹⁷ 김기중, "뉴욕 필하모닉 스쿨 파트너십 프로그램 '꼬마 작곡가'",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211022001>, (2014/03/10).

이담소담 팀원 중 방학 때 그와 꼬마작곡가 프로그램으로 같이 일하며 인연을 쌓은 팀원이 있어, 미국에서 다른 음악 전문가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그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점심 인터뷰로는 인터뷰 기록에 한계가 있었기에, 존 덕이 이전에 수행한 미국 음악잡지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가상 인터뷰를 구상하였다.

Q) 꼬마작곡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A) 사실은 가르치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나의 생각을 깨는 사람이 있었는데, <Young People's Concerts 청소년들의 콘서트> 프로그램을 주도한 레너드 번스타인이었다. 나는 그의 밑에서 음악이 벽과 같이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고 이것을 아이들의 음악으로 표현하는 그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이후, 브루클린의 공립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던 시절, “아이들을 위한 음악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앙상블과 오케스트라를 위해 곡을 써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생각을 <Meet the Composers 작곡가를 만나다> 프로그램을 창시한 존 더피(John Duffy)와 공유하여 실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¹⁹

Q) 꼬마작곡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과정이 궁금하다.

A) 운영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아이들만의 음악을 끌어내는 것이 힘들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곡을 편곡해주었고 내가 관현악법을 담당하였다. 그래도 아이들만의 음악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실제 작곡가처럼 스스로 작곡하여 콘서트 홀에서 발표하게 하고 싶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음악에 관련된 결정은 아이들이 내리도록 자유를 주어야 했다. 사람들은 이 생각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아이들의 재능과 창의력을 믿고 따른 결과 놀라운 음악이 창작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문 음악가 및 작곡 선생님들에게도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참을성을 가지고 관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²⁰

¹⁸ "Jon Deak: From Bernstein to Maazel, Four Decades with the New York Philharmonic", <Bass World magazine>, http://www.jondeak.com/deak_bass_world.pdf, p. 1, (2014/03/10).

¹⁹ "The Teacher in Spite of Himself", <Chamber Music magazine>, http://www.jondeak.com/deak_chamber.pdf, p2-3, (2014/03/10).

²⁰ Ibid, p-3.

Q) 당신은 학교나 경력개발센터의 도움 없이, 젊은 나이에 스스로 꼬마작곡가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그 시절 당신과 같은 젊은 음악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가?

A) 그들의 생각을 제한하고 싶진 않다. 다만, 용기를 내어 모험을 해보고 혁신을 만들어 보길 조언한다. 내가 아는 몇 연주가들은 연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 어떤 연주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중동의 연주자들과 함께 현악 사중주를 구성하여 아이들과 죄수들에게 전쟁의 상흔을 씻어주는 음악을 연주해준다. 이렇듯 장소나 내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넓은 시야를 통해 음악을 마음껏 시도해보면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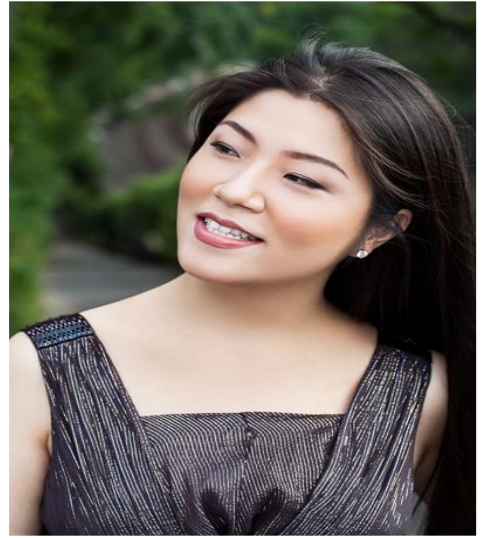


<사진 13> 뉴욕필하모닉 단원들과 점심식사

²¹ ²¹ "Jon Deak: From Bernstein to Maazel, Four Decades with the New York Philharmonic", <Bass World magazine>, http://www.jondeak.com/deak_bass_world.pdf, p. 3, (2014/03/10).

(3). HSM의 창시자, 테레사 김(Theresa Kim)

우리는 매네스 음대에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매네스 음대 교수님을 통해 테레사 김(Theresa Kim)을 만나게 되었다. 테레사 김은 줄리아드 예비 학교 및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친 후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학 학위를 얻고, Hamptons Music Session을 설립하였다. Hamptons Music Session은 여름 캠프 프로그램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학생들에게 피아노, 관현악, 기타, 보컬, 작곡 등의 음악 수업을 제공한다.²² 우리는 짧은 만남 후에 이메일로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흔쾌히 응해주었다.



<사진 14> Hamptons Music Sessions의 창시자, 테레사 김²³

Q) Hamptons Music Session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A) 나는 세 가지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Hamptons Music Sessions을 시작하였다. 먼저, 그 해 여름에 나는 가르치는 직업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Hamptons 지역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이 없는 것에 주목하였다. 동시에 다른 선생님들이 직업을 얻는 것을 돕고 싶었다

Q) Hamptons Music Session을 설립하시면서 자금 투자나, 교육생들 모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과정이 궁금하다.

A) 기금 모금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얻을 수 있기에 굉장히 어려웠다. 보통은 기부금을 받기도 하지만 모금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열기도 한다. 기금 모금 없이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존재하고 또한 정부의 지원이나 사적인 기부를 받아서 Hamptons Music Session을 운영한다

²² "Piano, Hamptons Music Sessions", <http://hamptonsmusic.org/theresa-kim-founder>, (2014/03/07).

²³ Ibid.

Q) 테레사 선생님은 음악인으로써 자기 경영인의 롤 모델인데, 앞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처럼 자기주도적인 직업을 갖을 수 있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A) 음악가는 자기 경영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스케줄 관리부터 세세한 정보와 마감 기한까지 포괄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많은 음악가들이 훈련되지 않은 것인데, 마치 경영인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또한, 음악가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여 생각을 넓히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2. 경력개발 프로그램 제안

A. 일대일 맞춤 컨설팅 및 자기 홍보 (Self-promotion) 교육

수많은 연주자들 속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연주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신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연주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줄리아드, 피바디, 맨해튼 음대의 경력개발센터에서는 학생의 개인 연주실력 향상을 위한 레슨뿐만 아니라 자신을 홍보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줄리아드 음악대학에서 열리는 리셉션과 세미나를 들 수 있다. 줄리아드는 음악과 관련된 단체와 개인을 초청하여 특강을 열곤 하는데 이 곳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취직을 하는데 있어 무척 중요하다. 때문에 줄리아드에서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났을 때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화술에 대한 지도까지 병행한다. 덕분에 학생들은 프로필 정리에서부터 음악계의 인맥관리, 화술에 이르기까지 연주자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보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어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 이담소담은 미국의 음악대학들의 예를 통해 이화여대에 적용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학생 개개인을 위한 이력서, 포트폴리오 작성

매네스에서는 일반 취업 준비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듯 음악대학 학생들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작성을 돕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학생의 커리어를 관리해준다. 또한 경력개발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음대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받도록 하며 교수들 또한 큰 관심을 가지고 돕는다. 경력개발센터의 컨설턴트 Ar Adler 는 이력서 교정에 관한 풍부한 교육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담소담이 매네스 학생의 이력서 샘플을 요청한 결과, 목표로 하고 있는 직업에 기초하여 세세한 경력과 경험이 개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 개인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취업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이다. 학생의 졸업 후 정보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면 훗날 워크샵에

강사로 초청하거나 해당 분야의 진출을 꿈꾸는 후배와의 연결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피바디 또한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개별 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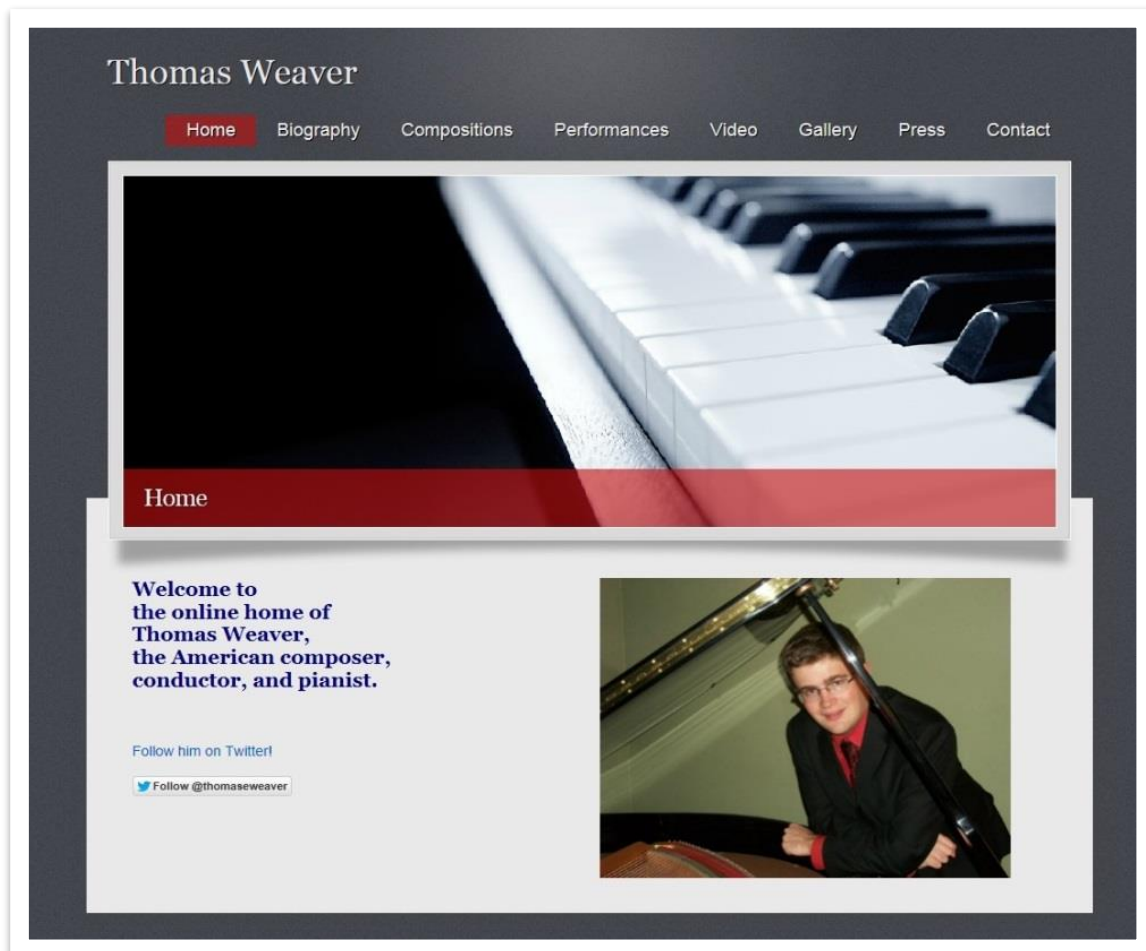
이담소담은 피바디 경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작성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상담실을 둘러보았다. 피바디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커리어 상담 시 소리 발생기를 사용해 일부러 작은 소음을 만들고 있었다. 학생의 이야기가 외부에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학생이 편안한 환경에서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학교의 모습에 우리는 무척 깊은 인상을 받았다. 경력개발센터의 높은 이용률은 이처럼 세심한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개인에 맞춘 커리어 관리는 학생들이 보다 연습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동시에 다양한 연주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개개인의 성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연주자로 활발히 활동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한다면 학교 자체의 이미지 및 입시경쟁률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 때문에 이화여대 음악대학도 전문 연주자를 꿈꾸는 학생들의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작성을 도와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커리어 발전에 따른 꾸준한 업데이트와 기밀유지, 장기적인 보관이 병행 되어야 한다.

(2). 자기홍보 (Self-Promotion)에 대한 특강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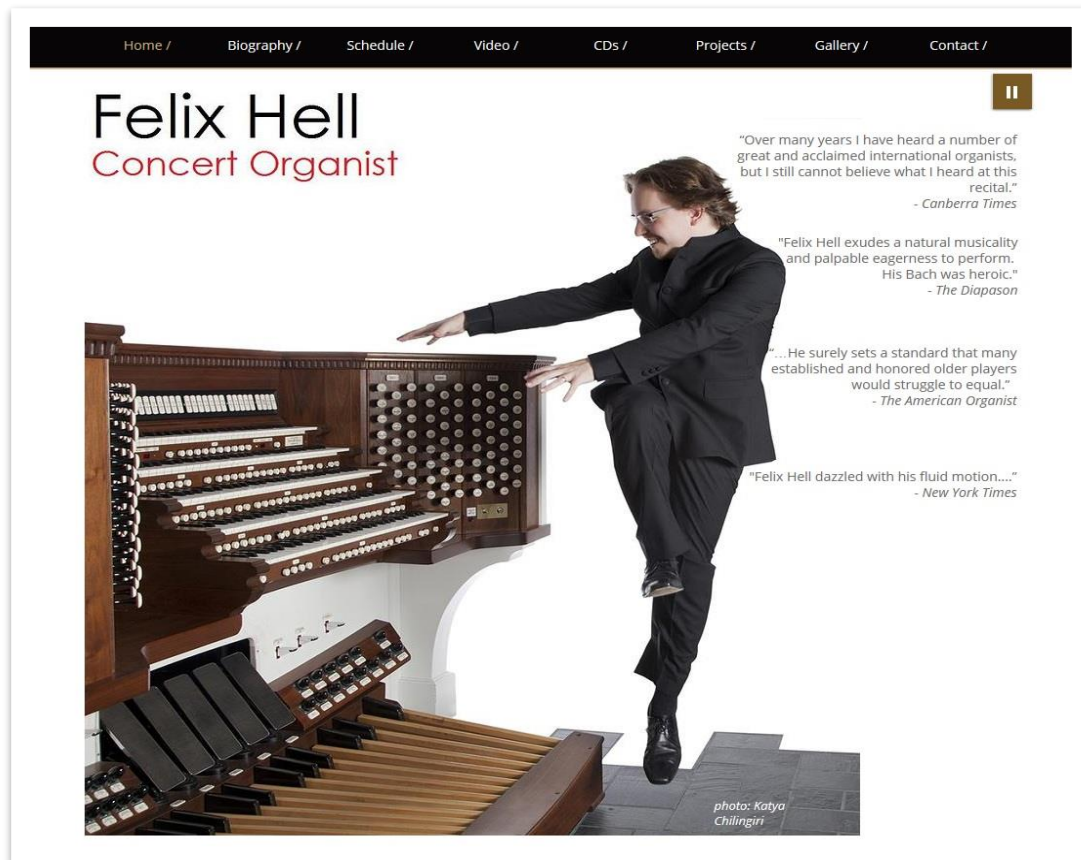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자신을 PR 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학생이라면 더 이상 소속사를 찾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충분히 홍보 할 수 있다. 때문에 학생들은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 매네스에서 만난 피아노 전공의 학생의 경우 직접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자신이 작곡한 곡과 피아노 연주 동영상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한 자기 PR 에 무척 적극적이었다. 우리가 국내 사전조사를 하며 만난 오르간 연주자 ‘펠릭스 헬’ 또한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가 졸업한 피바디에서는 학생이 도움을 요청할 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개인 홈페이지는 잠재고객들의 접근을 쉽게 만들어 자기 PR 에 무척 효과적이다. 이화여대 음악대학 또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자기 PR 의 중요성을 알리고 효과적인 자기 PR 방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



<사진 15> Thomas Weaver 의 개인 홈페이지²⁴

²⁴ "Thomas Weaver", <http://www.thomaseweaver.com/>, (2014/03/11).



<사진 16> Felix Hell 개인 홈페이지²⁵

B. 교내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설

(1). 멘토링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매네스	교수진 및 학교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에 맞는 멘토를 소개받고 진로계획을 상담 받음
맨해튼	졸업생과 교수를 초청하는 워크숍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함

²⁵ "Felix hell", <http://www.felixhell.com/>, (2014/03/10)

뉴욕대(NYU) ²⁶	일대일 인터뷰: 일대일로 멘토를 만나 다양한 직업에 대한 소개, 각 직업의 특징, 진로 상담 등을 의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직업현장탐방: 하루 혹은 몇 시간 동안 멘토의 직장에서 함께하며 실제 직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전화 및 스카이프 만남: 전화나 스카이프를 통해 멘토와 대화하며 직업 정보와 관련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표 2>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

매네스, 맨해튼, 뉴욕대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선배와의 인맥을 쌓아 때에 따라서는 인턴십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화여대 또한 다양한 음악분야에서 일하는 졸업생들과의 튼튼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리고, 멘토와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음악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설정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다양한 교내 특강

① Music Entrepreneurship 특강

‘Music Entrepreneurship’은 아직 한국의 음악대학 학생들에게 무척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이 개설되었을 정도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Music Entrepreneurship’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음악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앞으로 어떠한 가치를 창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한다. 그 결과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식하게 되어 삶의 방향성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피바디, 맨해튼, 매네스의 특강을 직접 청강하며 ‘Music Entrepreneurship’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²⁶ "Finding a Mentor", <http://www.nyu.edu/life/resources-and-services/career-development/prepare-for-the-job-search/finding-a-mentor.html>, (2014/03/06).

The Entrepreneurial Musician

Dr. Tanya Kalmanovitch

“The Entrepreneurial Musician”이 되고자 하는 매네스의 학부 수업에서는 Entrepreneurship의 기본정신부터 적용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배우고 토론한다. 이담소담은 ‘Entrepreneurship’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0여명 정도의 소규모의 학생들과 교수님 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수업을 진행하시는 Tanya Kalvmanovitch 교수님은 유명한 무대 감독인 Samuel Beckett의 명언,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실패를 만들어라.”를 인용하여 Entrepreneurship이란 ‘책임감과 위험성을 감수하고 자신의 재능, 기술과 인맥을 활용하여 기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기회로 만들어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동시에 학생들에게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였다. 이에 한 학생은 “줄어드는 음악의 청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McDonald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연주하여 새로운 청중의 시선을 이끄는 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Entrepreneur가 되기 위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가지고 최대 가치를 만든 뒤,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라는 과제를 내주었다.

★Entrepreneur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원칙

1. 행운을 스스로 만들어라.
2. 자신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에 열린 마음을 가져라
3. 실패는 빨리 하고 자주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본 수업은 경력개발센터 음대 컨설턴트와 상담, 멘토와의 만남, 교수와의 개개인 평가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가계부 작성, 커리어 계획서, 관심 있는 직업 공고에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한다.

Practical Foundations: Entrepreneurial Leadership Skills

Angela Myles Beeching, Casey Molino Dunn

맨해튼 음대의 수업 "Entrepreneur적인 리더십 기술"에서는 변화하는 현대 음악 시장에 맞추어 예술성에 'Entrepreneur 기술'과 '비전'이 추가 된 경력개발 방법을 배운다. 피고용인으로서 안정적인 봉급과 보험 등이 보장되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기회와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여 자기 자신을 고용하는 'Entrepreneurship 기술'이 필요한 시장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창의성, 혁신, 커뮤니케이션, 가치, 영향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여 이를 통해 전문 음악인들이 필요한 기술(자기 홍보, 관객과의 유대감, 재무 관리, 모금 활동 등)에 대해 관찰하고 토론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약력을 작성하고 자신의 연주 비디오를 제작해 자기 홍보 능력을 키우는 과제가 있다. 또한, 창의적으로 성공한 음악인/음악단체의 사례를 찾아 그들의 프로필을 정리하고 자신이 연주할 콘서트를 홍보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실질적인 프로젝트형 과제도 존재한다.

② 법률 특강

음악인으로써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음악 외에도 다양한 지식들을 필요로 한다. 이 중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피바디에서는 "What Every Musician Needs to Know about Contracts(모든 음악인이 계약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라는 특강을 개설하여 연주자들이 계약서를 작성 할 때 알아야 할 조건들을 알려주고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해준다. 맨해튼 음악대학에서는 "Legal Issues: Copyright, Licensing, and More for Composers part of Composers' Forum" (법률문제: 작곡가의 포럼의 일부로서 작곡가들을 위한 저작권, 라이선스 및 기타)"이라는 특강을 개설하여 작곡과 학생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교육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문제 등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이화여대에도 이처럼 음악대학 학생들이 취약하기 쉬운 법률문제를 다룬 특강이 있다면 학생들은 훗날 계약을 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피바디의 수업에 대한 내용이다.

What Every Musician Needs to Know about Contracts

Lawyer. Frank Morgan

매주 화요일 12시에 열리는 주제별 워크샵에서는 전문 음악인이 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운다. 이담소담은 피바디 경력개발센터의 배려를 통해 워크샵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번 수업은 "모든 음악인이 계약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라는 주제의 워크샵이다. 문화 산업법, 지적재산권 분야의 변호사가 일일 강사로 나섰다. 본 워크샵에서는 계약의 정의, 형태, 관련된 법률적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계약서의 예시를 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직면하게 될 공통적인 문제를 인식시키고 전략적인 협상 방안에 대해 알려주었다. 현직 변호사를 통해 음악 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배워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워크샵에 참여하며 국내 사전조사 시 인터뷰를 했던 오르간 연주자 펠릭스 헬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워크샵에 참여하고 있었다. 졸업 후에도 꾸준히 학교와 교류하며 정보를 얻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③기타 특강

법률 특강 외에도 맨해튼에서는 "The Psychology of Peak Performance(최고 연주를 위한 심리)", "Financial Planning for Singers(성악가를 위한 금융계획 설립)", "Social Media for New Music(새로운 음악을 위한 소셜 미디어)" 등 심리학에서부터 경제학까지 무척 다양한 분야의 특강을 열고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음대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분야들이다.

피바디 또한 음악 외에도 "Intro to Audio Recording Techniques(오디오 녹음 기술에 관한 기초)", "Introduction to Audio Editing in Pro-Tools(프로 도구를 활용한 오디오 편집 기초)", "Introduction to Video Editing(비디오 편집의 기초)"라는 기술 워크샵을 열고 있었다. 기술 워크샵은 특히 작곡과 학생들에게 무척 유용하다. 피바디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학습하면 될 것'이라 여기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들까지 학교 차원에서 꼼꼼히 신경 써주고 있었다. 이처럼 이화여대 음악대학 또한 학생들을 위하여 음악과 관련된 특강 외에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특강을 개설한다면 학생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갖는데 무척 도움이 될 것이다.

Technology Workshops

To participate in one of the technology workshops listed below, email peabodyITS@jhu.edu with the titles and dates of the workshops you'd like to attend. All sessions take place in the Peabody Technology Center located near Unger Lounge. Discover more about [Peabody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January

Date

Workshop

Th, JAN 23
6-7pm

Intro to Audio Recording Techniques (I) H4nAuthorization

This workshop will cover the basics of audio recording techniques using the Zoom H4N digital audio recording. It will cover microphone setup and positioning and other techniques to maximize recording quality.

M, JAN 27
6-7pm

Multi-Media Studio Reservation Authorization Workshop (I)

Learn the basics of using the multimedia studio for audio capture. This workshop will cover the basics of audio recording, including microphone positioning, and configuration of audio capture equipment. Upon completion of this workshop you will be eligible to reserve the multimedia studio

T, JAN 28
7:30-9:30pm

Digital Video Camera Checkout Authorization Workshop (Basic 1)

Learn the basics of configuring and shooting video with the Canon XA25 digital video camera. Upon completion of this workshop, you will be eligible to check out the Canon XA25 digital video camera. **Sony and Zoom Video Cameras, External Microphone(s)**

W, JAN 29
6-8pm

Digital SLR Camera Checkout Authorization Workshop (I)

Learn the basics of using the Digital Rebel T5i for still image capture. Upon completion of this workshop, you will be eligible to check out the T5i camera.

Th, JAN 30
5-6pm

Introduction to Basic Audio Editing using Audacity (I)

A hands-on crash course in basic Audio Editing using Audacity, a Free, Open-source, Cross Platform Application that is extremely useful, did we mention it's Free?

<사진 17> 피바디 기술특강²⁷

(3). 공연 기획 및 실습

피바디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연주자로서 공연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연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과정에 대해서도 배우고 실습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자의 경우, 단순히 쇼팽의 곡을 연주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관객을 공연장으로 끌어 들일 수 없다. 쇼팽과 관계 된 다른 작곡가들의 곡을 함께 연주하거나 쇼팽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등의 독특한 주제를 잡고 이를 바탕으로 곡을 선정하여야 공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때문에 피바디에서는 이처럼 좋은 공연 주제를 잡는 방법에서부터 어떻게 관객을 유치하는지, 효과적인 티켓 판매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모든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한다. 심지어 공연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방법까지 지도한다.

반면 현재 이화여대 음악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내 외 음악회 당일 날 공연 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에 그친다. 공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는 연주자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무척 도움이 된다. 경험을 통해 어떻게 연주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소규모의 공연을 열어봄으로써 공연 기획 과정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²⁷ "Career and Creativity Seminars", <http://www.peabody.jhu.edu/conservatory/mecc/seminar.html>, (2014/03/05).

C. 기업 후원금 조성

평생 갈고 닦아야 하는 음악의 특성상, 음악사적으로도 음악인에게는 늘 후원자가 뒤따라왔다. 이담소담이 미국의 주요 음대들을 탐방해 본 결과, 기부문화가 모든 학교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담소담이 탐방한 대학들의 기부/장학 현황을 통해 이화여대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1). 기부금에 대한 인식변화

줄리아드, 피바디, 맨해튼 음대 등 각 학교의 음대 사이트에는 모두 '후원(Giving)' 카테고리 가 개설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다양한 기부 방법, 기부 장학금 목록과 기부자들의 명예 명단이 올라 있었다. 특이한 점은 단순히 기업이 성과와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줄리아드의 강충모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후원을 해 주는 조건 중에는 '사회에 일정한 기간 동안 전공악기 연주로 봉사할 것', '졸업 후 어떻게 음악으로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 계획서를 쓰고, 정기적으로 후원자와 만나 그에 관해 대화를 나눌 것'와 같은 것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 제조업체처럼 값을 매기는 대신, 음악인이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관련하여 줄리아드에서 플루트를 전공하는 학생의 예시를 들어 보자. 이 학생은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주말마다 지역의 한 양로원에서 봉사 연주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의 한 말기 암 환자로부터 '죽기 전 마지막으로 천상의 소리를 들었다. 이제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그 학생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하는 음악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한다. 기부란 이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줄리아드의 경우 기부금으로 개설된 장학금이 수백여 개에 달하였고, 피바디에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동안의 후원자 수가 1500명 이상이었다. 이러한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이화여대,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도 뿌리내린다면 음악으로 더욱 풍성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2). 다양한 기부 방법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음악인을 길러내는 일에 기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피바디는 '악기'를, 줄리아드는 '주식'을 후원 받기도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음악인으로 기반을 잡은 선배들이 돌아와 무료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해 주는 식으로 기부하기도 한다. 또한 '1\$ 기부'라는 것을 시행하여 부모가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와 어린 시절부터 적은 액수지만 가진 것을 기부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이러한 기부자들의 이름을 연주홀, 연습실, 심지어 책걸상예까지 새겨 주며 그들의 명예를 세워 준다. 미국의 기관이나 학교마다 기부자가 많은 이유는 바로 '기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낮은 장벽'에 있었던 것이다. 기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이는 한 예비 음악인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의 손길이 오간다는 것이며, 이것이 학생들에게 있어 음악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나아가 이러한 음악가는 성장해서도 이러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음악인이 되어 또 다른 기부문화를 창출해 낼 것이다. 이 선순환의 고리는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서 기부문화를 장려하는 데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에 이담소담은 다음과 같이 기업에 후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안건을 마련하였다.

기업명	후원내용	기대효과
금호아시아문화재단	연주장소(금호아트홀) 혹은 장학금	a. 메이저 무대에서의 연주기회를 통해 연주자로 발돋움 b.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알아본 기업이 후원해주는 문화의 정착
중앙일보사	연주장소(호암아트홀) 혹은 장학금	
LG	연주장소(LG 아트센터) 혹은 장학금	
삼성	재정후원(호암재단)	
이화여대	연주장소(ECC 삼성홀, 단대 로비 등) 혹은 재정후원(이화여대 총동문회), 워크샵후원(음대 총동문회) 등	a. 교내 타 전공 학생들의 음악에 관한 관심 고취, 잠재적 청중 양산 b.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공연기획, 마케팅 등의 실무를 연습할 기회 제공

<표 3> 기업 후원

D. 지역 사회와의 연계

(1). 미국의 지역사회와의 연계 시스템과 교내 적용 방법

① 공연장과의 연계

링컨 센터의 부속 기관으로 있는 줄리아드는 링컨 센터와의 연계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있다. 링컨 센터는 줄리아드 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는 날을 정기적으로 잡아 놓고 줄리아드 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링컨 센터의 모든 공연과 전시 등의 할인 혜택과, 리허설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줄리아드의 경력개발 센터내의 매니지먼트에서는 어떤 공연이 있는지, 리허설을 볼 수 있는지 전체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만약 링컨 센터의 연주자가 급하게 핑크가 난 경우, 그 레파토리가 가능한 학생이 있는지 연락이 와서, 대체가 된다.

우리 학교도 지역 사회의 공연장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는 연주 기회뿐 아니라 미래 직업 마련의 장을 열어줄 수 있고, 지역사회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또한 이화여대 음악 대학을 후원함으로써 공연장은 공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이미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예술의 전당의 사례가 있으며, 우리 학교는 가까운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 중구의 호암아트홀, 정동극장들과 연계를 맺을 수 있다.

② 자원 봉사

줄리아드에서는 장학금을 줄 때의 조건으로 먼저 성적이 B+이상일 것과, 연주 봉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 양로원이나 병원, 교회 등에서 연주 봉사를 하는 수업을 개설하거나, 지역 사회의 교육 기관에서 연주나 작곡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연주 기회를 갖게 되며, 잠재적인 청중을 확대시킨다. 또한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인으로써 나아갈 길을 찾게 된다. 이러한 연주와 티칭 경험이 음악인들의 경력이 될 수 있으며, 미래 직업 탐구와 자아 실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비영리 기관을 조직하여 음악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세금 감면 혜택과 정부와 기업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연주와 티칭 봉사 외에도, 공연 기획 등 기타 다른 음악 산업 관련 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개개인에 맞는 맞춤 설계를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나 본교 음대 졸업생이 경력개발센터에 있어야 한다. 통영이나 대관령 국제 음악제 등의 인턴과 자원봉사 지원 시기를 알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대될 수 있도록 연결망을 만들어야 한다.

(2). 구체적 실행 방안

구분	기관명	연락여부	선정 이유 및 기대효과
장소 후원	서대문 문화회관	○	a. 다양한 연주 기회를 통해 연주 경력을 쌓음. b. 졸업 후 전문 음악인 또는 교육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c.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연대라는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움
	세종문화회관	○	
	정동극장	○	
	호암아트홀	○	
지역 사회 환원	서대문구 노인복지관	○	a.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과 음악의 혜택을 나눔. b. 학생일 때부터 음악의 사회적 역할을 깨닫고 나눌 줄 아는 음악인으로 성장
	서대문구 장애인복지관	○	
	서대문구 다문화센터	○	
	서대문구 사회복지관	○	

<표 4>공연장 및 지역사회 연계

위의 모든 기관의 답신을 기다리는 중이며 그 중 다문화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이 왔다.

14-03-05 (수) 17:00에 이 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 RE: 다문화센터 담당자님께. ☞

보낸사람 : ☆ 서대문구다문화<sdmmcc@daum.net> 주소록에 추가 | 수신처단정하기

받는사람 : 김해든<haedeun90@naver.com>

안녕하세요.

반가운 소식이에요.

음악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마냥 고맙습니다.

연주장소와 봉사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대학과 협력프로그램 제안..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센터에서는 다문화 및 저소득가정 아동 오케스트라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상임대받은 악기가 있고, 1년 정도 한 신문사의 후원을 받아 진행했는데 복잡한 사정으로 중단되었지요.

저희 센터 위탁법인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어서 학교 내 음악대학과의 협력프로그램을 모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협력 내용에 담겨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신옥 02-375-7531

<사진 18> 다문화센터 이메일 내용

E.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제안

(1). 미국 음대 공통 데이터 베이스 Bridge

미국의 음대들을 방문해서 알아본 바, 모든 대학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른바, Bridge는 세계적인 음악인들을 위한 연결망으로써 음악 및 예술 행정 분야에서 콩쿨, 오디션, 레슨, 장학금, 음악 축제 등 3000개 이상의 기회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미국의 음대 커리어 센터에서는 이처럼 공개된 취업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여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쓰이도록 한다.

(2). 재학생 및 동문 고용 인력풀

줄리아드와 맨해튼 음대의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재학생 및 동문의 음악가를 고용하도록 인력풀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다. 외부에서 연주자가 필요할 경우, 리사이틀, 오브리, 교회 반주 등의 기회에 따라 그에 걸맞은 학생을 추천해준다. 학생들 또한 관심이 있으면 자신들의 프로필 개제를 경력개발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3). 개인 레슨 및 음악 강사 인력풀

Private Teaching Directory는 음악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 교수진 및 동문들이 자신의 레슨 경력 등을 프로필로 등록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다. 프로필을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경력개발센터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리스트에 게재해주는 절차이다. 이 웹사이트는 공개되어 있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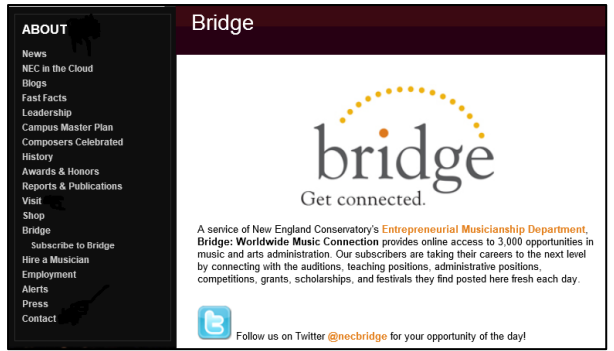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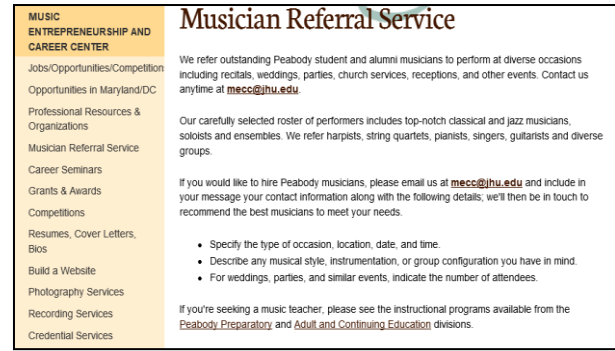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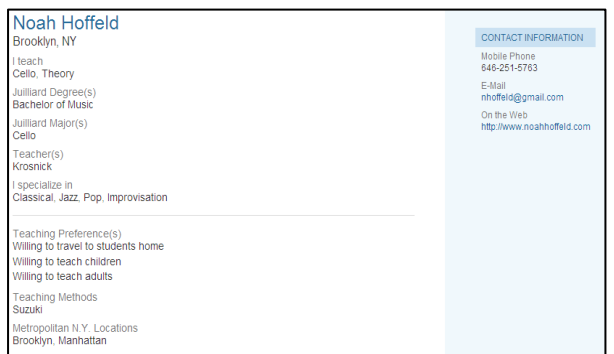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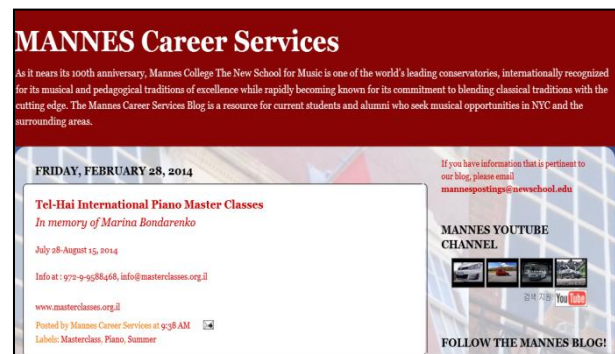
등록만 되어 있으면,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형태이다.

(4). 블로그 및 SNS를 통한 실시간 취업 정보 제공

매네스 음대 등은 커리어센터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공쿨, 마스터클래스, 인턴쉽, 직업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5). 전공 및 직업군별 웹사이트 링크

피바디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주요 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를 전공과 직업군별로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 링크를 통해 그 기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관심 있는 채용 공고 및 인턴쉽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사진 19>미국 음대 공통 데이터 베이스 Bridge²⁸ 	2)<사진 20> 재학생 및 동문 고용 인력풀²⁹ 
3) <사진 21>개인 레슨 및 음악 강사 인력풀³⁰ 	4) <사진 22>블로그 및 SNS를 통한 실시간 취업 정보 제공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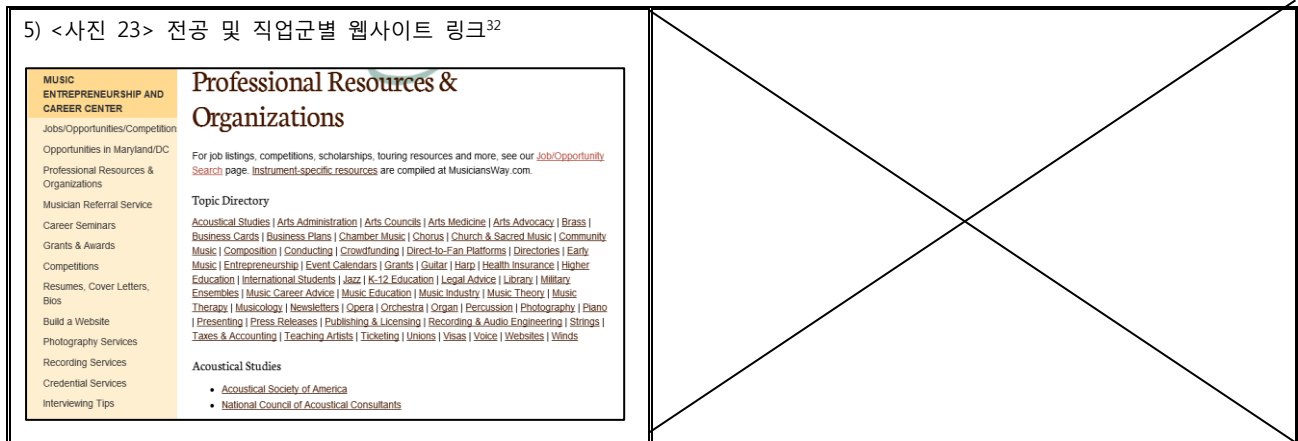
²⁸ "Bridge", <http://necmusic.edu/bridge>, (2014/03/10).

²⁹ "Musician Referral Service" <http://www.peabody.jhu.edu/conservatory/mecc/musicians.html>, (2014/03/10).

³⁰ "Private Teaching Directory", <http://www.juilliard.edu/student-life/career-services/private-teacher-directory>, (2014/03/10).

³¹ "Mannes Career Services", <http://mannescareerservices.blogspot.kr/>, (2014/03/10).

5) <사진 23> 전공 및 직업군별 웹사이트 링크³²



이처럼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사이트 개설이 잘 되어 있고, 음대 학생들을 위해 공통적으로 데이터 베이스 Bridge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상 깊은 점이였다. 우리 학교도 음대를 위한 경력 개발 홈페이지와 SNS를 만들고, 취업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음대 학생들끼리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마련되는 부가적인 이득 또한 기대한다.

F. 경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미국의 경력개발센터들은 NETMCDO(NETWORK of Music Career Development Officers)라는 모임을 만들어 1 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그들은 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어떻게 수정, 보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눈다. 이러한 교류는 각 학교마다 독특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데 무척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NETMCD 는 매년 회의 내용을 보고서 형식의 자료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³³

우리는 맨해튼 경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2013 년도 자료를 받아 보았다. 보고서는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참여한 학교의 목록, 안건을 제시한 대학과 제안자의 이름은 물론 각 안건에 대해 토의 된 모든 내용이 대화체로 무척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다. 우리는 경쟁적으로 일 할 것 같았던 각 음대의 경력개발센터 직원들이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친밀한 교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 맨해튼 경력개발센터 담당자는 우리가 경력개발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먼 한국에서 왔다는 소리에 큰 흥미를 보였다. 그녀는 이화여대에 음대를 위한

32 "Professional Resources and Organizations" <http://www.peabody.jhu.edu/conservatory/mecc/resources.html>, (2014/03/10)

33 "Network of Music Career Development Officers", <http://www.musiccareernetwork.org/>, (2014/03/12)

경력개발센터가 생긴다면 우리와 교류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이담소담을 내년 정기회의에 초대해주었다. 동시에 이화여대도 국내 타 대학의 경력개발센터와 네트워크를 형성해볼 것을 추천하였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화여대에 음대를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국내 타 대학의 경력개발센터들과 교류가 이루어 진다면 더욱 발전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NETMCDO 2013 Session Report Name of session: Discussion on career development courses Convener: Janis Weller Participants: 20 • What should be the qualification to teach a class like this? • Importance of creating a safe space within the classroom- confidentiality • When should this class be offered? - Right before graduation - Early on - Book ended - Integrated throughout the curriculum • Course outcomes - Students will know what questions to ask - Students will have the attitude of "I can figure it out." • Resource: Strength Finder 2.0 (book) by Tom Rath • What to do with ESL students in this course - Language issues and cultural expectations NETMCDO 2013 Session Report Name of session: Advising new student ensembles Convener: Sarah Bellot Participants: 10 How to help students who are starting ensembles and need advice and mentors: • At Oberlin, students meet for advice about budget, interacting with ensemble, photoshoots, recordings, etc. • NTSC- students can apply for a grant initiative where they are paired with an advisor and given a start financially • Challenges: - Finding the right mentors - Maturity of ensembles • Resources: - NEC has some worksheets with resources for ensembles. Oberlin has teachers from business school advise about finances.	NETMCDO 2013 Session Report Name of session: Connecting students with successful practitioners in the community Convener: Adam Levy Participants: Bryan Bowser, Maria Finkelmeier, Lindsay Medina, Adam Levy, Susan Helfter Lots of questions and networking opportunities with best practices and dilemmas: • How do schools increase networks? • What software is best for building internship opportunities and nurturing? • How to use faculty/outside resources? • How to quality control students sent into the community for networking, mentoring, internships, and work? • How do we help better students manage reasonable career expectations? • How do we get faculty to buy in? • How do we introduce students to stars holders in the community? • How can a curriculum encourage students to connect outside the institution? NETMCDO 2013 Session Report Name of session: What can faculty do to make your life easier? Convener: Martha Hilley Participants: Julian Ross, Mike Boyman, Angela Beeching, John Steinmetz • Teachers with connections in the profession beyond graduation • Think about and help students plan for future • Teach how to present music in an approachable way • How to get commissions/performances? • Co-curriculum panels on career-oriented issues several times each semester • Offer student mock job interviews • Communicate, meet for lunch, etc. • Invite career advisors to classes and faculty meetings • Notify career advisor of opportunities for students
--	--

<사진 24> NETWORK of Music Career Development Officers 보고서³⁴

³⁴ Ibid.

Ⅲ. 결론

이담소담이 자기설계 해외탐사 프로그램이라는 첫 도전장을 내민 지도 벌써 5 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막연하기만 했지만 반드시 해결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절실하게 매달려왔던 시간들이었다. 국내외를 넘나들며 음대생의 신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늘어놓고 계획을 짤 때의 설렘! 그 계획 하나하나에 모든 실수의 가능성을 고려해가며 노심초사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실제로 부딪혀 갈 때의 두려움! 우리의 무모한 도전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조언을 주실 때의 안도감과 기쁨! 머나먼 미국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녹초가 되었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이메일로 만났던 학교와 담당자들을 만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가던 성취감에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다.

이 모든 이담소담의 활동은 학교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 덕분이고, 학교에서 우리를 믿고 기회를 준 이유는 우리를 통해 음대생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안겨주고자 하는 큰 뜻이 있었기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해야만 우리 이담소담이 진정한 해외 탐사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음악대학의 실무중심적인 커리큘럼, 경력개발센터의 놀랍고도 정교한 학생 맞춤형 기획, 학교 사이에 벽이 없는 네트워크,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음악만의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학생과 학교, 사회와 기업 모두가 알고 있다는 점까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당장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탐방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가치는 제도가 아닌, 각자의 역할을 알고 자신의 자리에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자세이기에 우리는 앞으로의 음악대학의 미래가 밝음을 확신한다.

미국의 음악대학과 경력개발센터는 학생이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과 'Music Entrepreneurship'을 가르쳐 주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사회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 음악 교육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학생들에게 어떻게 음악인으로 설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실행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연습시간만 채우고 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음악가가 되어야 하는지,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것을 학교와 사회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앞으로 뻗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함양한다면, 그 토양 위에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는 자연스럽게 꽃 피우고 열매 맺을 것이다.

그래서 이담소담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학생으로서 먼저 지역사회에 손 내밀어, 연주회장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우리의 음악적 재능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학교와 경력개발센터, 인근의 연주장으로 먼저 다가가 우리가 보는 음대생의 미래를 계속해서 보여주며 문을 두드릴 것이다. 또한 비단 미국의 음악대학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음대생들과 어깨를 함께하고 서로의 사이에 존재하는 벽을 허물어 함께 손잡고 앞길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넓은 시야와 꿈꿀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현실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우리의 모교 이화여자대학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본 보고서를 마친다.

IV. 참고문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통계」(2013), 한국교육개발원

“기업가정신”,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02543,
(2014/03/12).

강주화, “한독수교 130 주년 펠릭스 헬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 <국민일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760560&cp=nv>, (2014/03/08).

김기중, “뉴욕 필하모닉 스쿨 파트너십 프로그램 ‘꼬마 작곡가’”,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211022001>, (2014/03/10).

이상수(2006),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1328&cid=3433&categoryId=3433>, (2014/03/12).

“Bridge”, <http://necmusic.edu/bridge>, (2014/03/10).

“Career and Creativity Seminars”, <http://www.peabody.jhu.edu/conservatory/mecc/seminar.html>, (2014/03/05).

“Center for Music Entrepreneurship Services”, <http://www.msmnyc.edu/Instruction-Faculty/Center-for-Music-Entrepreneurship/CME-Career-Services>, (2014/03/03).

“Choong Mo Kang”, <http://www.juilliard.edu/faculty/choong-mo-kang>, (2014/03/05).

“Contact”, <http://www.peabody.jhu.edu/conservatory/mecc/contact.html>, (2014/03/03).

“Felix Hell”, <http://www.felixhell.com>, (2014/03/07).

“Finding a Mentor”, <http://www.nyu.edu/life/resources-and-services/career-development/prepare-for-the-job-search/finding-a-mentor.html>, (2014/03/06).

“Give to Peabody”, <http://www.peabody.jhu.edu/giving/oldgivingpage.html>, (2014/03/03).

“Jon Deak: From Bernstein to Maazel, Four Decades with the New York Philharmonic”, <Bass World magazine>,
http://www.jondeak.com/deak_bass_world.pdf, (2014/03/10).

“Juilliard Career Services”, <http://www.juilliard.edu/student-life/career-services>, (2014/03/03).

“Mannes Career Development”, <https://www.newschool.edu/Mannes/subpage.aspx?id=3040>, (2014/03/06).

“Mannes Career Services”, <http://mannescareerservices.blogspot.kr/>, (2014/03/10).

"Meet the CME Staff", <http://www.msmnyc.edu/Instruction-Faculty/Center-for-Music-Entrepreneurship/Meet-the-CME-Staff>, (2014/03/05).

"Music Entrepreneurship and Career Center", <http://www.peabody.jhu.edu/conservatory/mecc/>, (2014/03/03).

"Musician Referral Service" <http://www.peabody.jhu.edu/conservatory/mecc/musicians.html>, (2014/03/10).

Ms. Operageek, <Auditions, Auditions and More Auditions>, <http://msoperageek.wordpress.com/2013/06/20/auditions-auditions-and-more-auditions/>, (2014/03/05).

"Network of Music Career Development Officers", <http://www.musiccareernetwork.org/>, (2014/03/12).

"Piano, Hamptons Music Sessions", <http://hamptonsmusic.org/theresa-kim-founder>, (2014/03/07).

"Private Teaching Directory", <http://www.juilliard.edu/student-life/career-services/private-teacher-directory>, (2014/03/10).

"Professional Resources and Organizations", <http://www.peabody.jhu.edu/conservatory/mecc/resources.html>, (2014/0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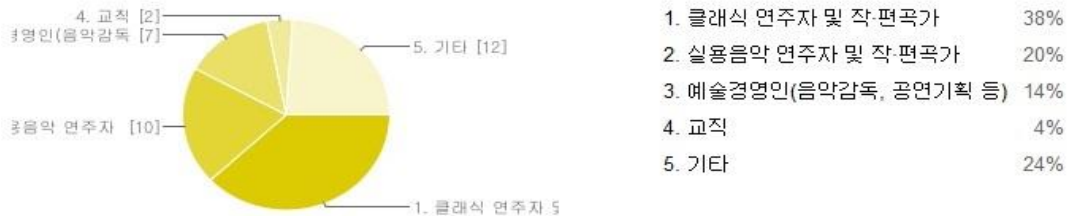
"The Teacher in Spite of Himself", <Chamber Music magazine>, http://www.jondeak.com/deak_chamber.pdf, (2014/03/10).

"Thomas Weaver", <http://www.thomaseweaver.com/>, (2014/0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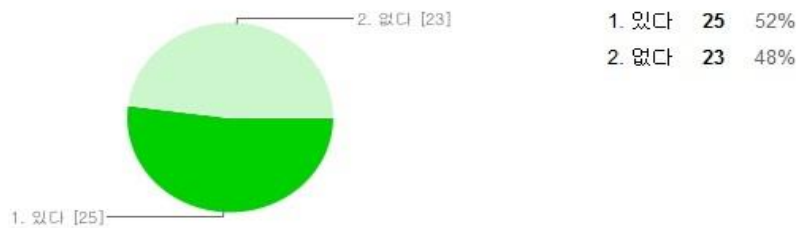
Wikipedia, "Curtis Institute of Music", http://en.wikipedia.org/wiki/Curtis_Institute_of_Music, (2014/03/02).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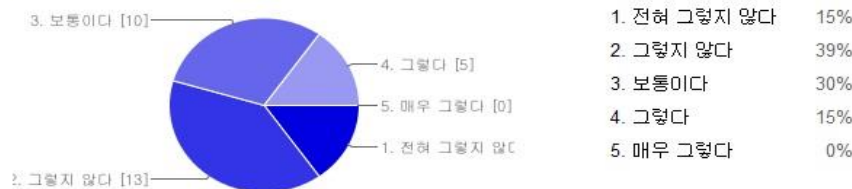
■ 진로에 관하여 : 1) 음대 졸업 후 어떤 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 교내에서 진로와 관련된 상담 혹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2-2. 진로와 관련된 상담 혹은 프로그램이 향후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 음대생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설문조사 1> 이화여대 음악대학 재학생·졸업생 53 명 대상

Credits to...

- ❖ 이화여자대학교
-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지원팀
-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진
- ❖ 이화여자대학교 경력개발센터
- ❖ *Prof. Michael Jimpson*
- ❖ *Guilliard: Courtney Blackwell*
- ❖ *Mannes: Atr Adler*
- ❖ *Mannes: Dr. Janya Kalmanovitch*
- ❖ *Mannes: Angel & Thomas*
- ❖ *Manhattan: Angela M. Beeching*
- ❖ *Manhattan: Casey Molino Dunn*
- ❖ *Curtis: Loiselle Mary*
- ❖ *Curtis: Chris Hodges*
- ❖ *Peabody: Gerald Klickstein*
- ❖ *Peabody: Megan Jeffrey*
- ❖ *Peabody: Atri Messenger*
- ❖ *Felix Hell*
- ❖ *Jeresa Kim*
- ❖ *Jon Deak & New York Phil Associates*
- ❖ 이담소담 팀원들 서로♡